

# **G**\**F**L वृंगथद्गुज्ञ ज्ञान

----

**발행인** : 전성은

**발행처** : 경기외국어고등학교

기획: 지도교사 김시경, 부장 이지윤, 정성원 취재: 이지윤, 정성원, 전세현, 최희재 외 20명

편집: 전세현, 최희재

**주소** : 경기도 의왕시 고산로 105번길 30(고천동)

전화번호: 031-361-0500 팩스번호: 031-361-0598 디자인 · 인쇄: 비스토리













































### 교장선생님 인터뷰





1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켜 오신 선생님이 계시다. 학생들이 생활하는 모 습을 직접 살피기 위해서 매일 차 안에서 차가 운 아침을 드시는 선생님. 경기외고 학생들 모 두가 자식같이 느껴지신다는 선생님, 바로 애 교(愛校)만은 경기외고 제일이라고 자부하시는 전성은 교장선생님이시다. 이번 뜨락에서는 새 로 취임하신 전성은 교장선생님을 만나 보았 다.

1. 1기부터 우리학교의 역사를 모두 겪어오신 만큼 교장선생님이 되신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 은데, 교장선생님이 되신 감회는 어떠신가요? 제가 지금까지 학교, 인터넷 강의, 학원 등 많 은 곳을 거친 끝에 만난 곳이 경기외고인데요, 저는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때부터 이 학교가 '내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똑같은 집도. 똑같 은 차도, 똑같은 물건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더욱 애착이 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경기외고의 교장이 된 지금은 걱정이 앞 서기도 합니다. 학생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마 련해 주고, 경기외고를 더욱 훌륭하게 발전시 켜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니 즐거운 마음이 들면 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네요. 교장이 된 뿌 듯함보다는, 지금 해야 할 일들과 앞으로 나아 가야 할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고민이 전보다 늘어난 것 같습니다^^

#### 2. 우리학교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의 8, 9, 10기의 성향은 무엇이라 고 생각하세요? 제일 아끼는 기수를 꼽자면 누 구인가요?

8, 9, 10기 모두 제 자식처럼 아끼고 있습니다 ^^ 다만 성향 면에서, 학생들이 해가 갈수록 더 욱 활발해지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의 선배인 1, 2, 3기 같은 경우는 시험이 끝나

면 매우 주눅이 들고 걱정이 많아져서 제게 종 종 상담하러 오기도하고 우는 모습을 자주 봤 는데, 지금 학생들은 그때보다 학교생활을 즐 기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뿌듯합니다. 여담 이지만, 저는 학생들이 항상 자유로운 분위기 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 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학교는 1기 때부터 두 발 자율화를 추진하는 등 학생의 자율성을 존 중해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로서는 최근 기 수의 성향이 매우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 3. 우리학교의 교감선생님이 되시기 전까지 수 업을 잘 하시고 재미있으신 수학선생님으로 유 명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비결은 무엇이신가 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선생님은 첫째로 수업을 잘 하는 선생님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면서도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50분 동안 수업을 할 때,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보다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개념을 쉽게 정 리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풀이를 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는 생각 에서, 버스를 타고 학교에 올 때, 수첩을 하나 들고 어떻게 하면 더 명쾌하게 가르치고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를 적어보며 매일 고민했습 니다. 또. 인터넷이나. 책자를 통해 유머를 찾 아보며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 수학시간을 즐 겁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된 것이지, 절대로 처음부터 잘 가르쳤던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제 생각은 이렇습 니다. 가장 좋은 선생님은, 첫째,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둘째,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이 다. 셋째, 유머러스한 선생님이다. 이것이 학생

들을 잘 가르치기 위한 제 나름의 원칙이었습니 다. 또 저는 200권 가까이의 수많은 수학책을 집필했는데. 이것은 학생들에게 더욱 풍부하고 심도 있는 개념을 설명하고, 다양한 문제를 많 이 접하게 해 주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솔 직히 지금도 수업을 나가고 싶어서 많이 근질 근질해요. (웃음)

#### 4. 저희도 교장 선생님 수업을 너무 듣고 싶은 데 못 들어서 아쉬워요. 대신 학생들에게 수학 공부에 대해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수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예술 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천부적인 재능을 타 고 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선천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점만큼은 제가 장담합니다. 비록 타고난 재질이 뛰어난 사람 이 있다고 해도. 노력으로 99%까지는 따라잡 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요? 바로 즐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자아이 들 같은 경우에는, 밤늦게까지 아무리 게임을 해도 피곤한 줄 모르잖아요. (웃음) 수학도 이 와 같습니다. 수학이 좋고. 즐거워서 많은 시간 을 투자하게 되면 수학을 자연스럽게 잘하게 됩니다. 많은 문제를 풀어 볼수록 수능이나 모 의고사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겁니 다. 저는 수학이 고민인 학생들에게 이렇게 묻 습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했나요?" 수 학은 오직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만이 잘 할 수 있습니다. 수학을 즐기고, 많이 풀어 보세 요. 여러분의 수학 실력이 느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 5. 교사, 교육자 쪽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 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이것은 교사, 교육자 쪽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



들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이지만, 목표가 생겼다면 끊임없이 떠올 리며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하도록 하세요. 아직 꿈이 없는 학생이라면, 자신이 무엇을 할 때 가 장 즐거운지 떠올려 보세요. 분명 하나쯤은 있 을 겁니다. 저는 수학이 재미있었고, 중학교 때 에는 수학 시간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도 꼭 자신이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을 하 면서 삶의 여러 목표를 성취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할게요^^

#### 6. 교육자로서의 자질 외에 자신의 또 다른 재 능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부끄럽지만, 아마 사람을 설득하는 재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전부터 그런 것에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학설명회 같은 곳도 곧잘 다녔고요. 입학설명회를 위해 제주도까지 가보았답니다. 또 운동에도 나름대로 취미가 있어서, 종종 배 드민턴 같은 운동을 해 왔습니다. 지금은 나이 를 고려해서 산에 자주 다니고요^^

#### 7. 우리학교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 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우리학교에 대해 가장 안타까운 점은, 경 기외고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 과소평가되고 있 는 게 아닌가 싶어서입니다. 저희 학교는 그 어 느 학교에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교육프로그램 이나 아낌없이 학교를 지원해 주는 좋은 재단, 젊고 실력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협조적인 학 부모님들과 우수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들에 비해 우리학교가 많이 과소평가 되 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또. 학생들이 목 표를 높게 잡지 못하는 점이 가장 안타깝습니 다. 우리 학생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목표를 적 당히 설정하고 그 정도에 안주하는 듯한 인상 이 듭니다. 마음 먹고 지원하면 서울대학교에 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학생들인데 자신감이 없어서, 또는 낮게 설정한 목표에 안주해서 그 만큼의 성취를 보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경 기외고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목표든 충 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 디 꿈을 높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 8.이번 년도에 가장 추진하고 싶으신 일은 무 엇인가요?

제일 먼저 운동할 수 있는 공간, 뛰어 놀 수 있 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쉴 공간을 많이 마련해 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지 금 무엇보다 경기외고에 당장 필요한 것은 운 동장의 트랙인 것 같습니다. 이제 조만간 체육 대회가 열리는데 트랙이 없어 울퉁불퉁한 흙바 닥에서 달리기를 해야 하는 것이 참 안타깝네 요. 가까운 시일 내에 트랙을 만들도록 추진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곳과 협의하고 있는데, 학교 뒷쪽 산에 '숲 속의 도서관'을 만 들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책을 접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자습하며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또 교내 점심방송이나 방송부 활동을 활성화시킬 계획 이고, 학생들의 창의성 증진을 위해 학교 곳곳 에 작품들을 전시하고 싶습니다.

#### 9. 경기외고에 있으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에피 소드는 무엇인가요?

제가 이 학교에 오기 전에 서울에 있는 신일고 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신일고등학교 는 남자학생만 있는 남고였기 때문에 선생님도 남자선생님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유난히 선생님과 학생간의 체육활동도 왕성해서 항상 운동을 한 후에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상의 를 탈의한 채 수건만 두르고 교무실에 있고 그 랬어요. 그 습관이 남아 이 학교에 왔을 때 어 김 없이 남학생들과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고 선생님 휴게실로 왔는데 여선생님께서 소스라 치게 놀라시면서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민망하네요. (웃음)

#### 10. 앞으로 선발하고 싶은 인재상은 무엇인가 요?

저희 학교는 첫 번째로 도덕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인성이 갖춰진 학생, 두 번째로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줄 아는 학생, 세 번 째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신념을 가지고 열 심히 하는 학생을 인재상으로 여깁니다.

#### 11. 교장선생님의 현재의 꿈은 무엇인가요?

저는 경기외고에 제 뼈를 묻고 싶습니다(웃음) 경기외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모교인 경기외고를 다시 찾아 왔을 때, 너 무 어색하지 않게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서서 우 리 학생들을 반겨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 다. 경기외고에서 쫓아내지만 않는다면(웃음) 정년까지 이 학교에 오래오래 있고 싶습니다^^

#### 12. 저희 학교에서 SA수업을 들을 수 있다면 무엇을 제일 듣고 싶으세요?

일단 스포츠로는 라크로스 수업을 들어보고 싶 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다들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악기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어서 어 른이 된 지금은 음악도 다시 배워 보고 싶습니 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타를 배워보고 싶네요.

#### 13. 가플콘서트 때 교장선생님의 멋진 연주를 기대해도 될까요? (웃음) 경기외고에 있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누구인가요?

이름은 밝히지 못하지만 1기 여학생 한 명이 기 억에 남아요. 그 당시에는 의무귀가가 없었는 데 그 학생은 하루도 귀가를 하지 않고 잔류를 해서 눈 여겨 본 학생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산 책을 하는데 저 운동장 끝 벤치에서 그 학생이 울고 있었어요. 그 학생에게 매점에 가서 음료 수를 사주며 이유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답 을 피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그 학 생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갈 집이 없다고 말하더 군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 학생은 3년 내내 학 교를 매일 지키며 자율적으로 열심히 공부했어 요. 결국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갔고 그래서 더 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 14. 평소에 교장선생님께서는 어떤 노래를 좋 아하실까 생각해보았는데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7080세대 때 유명했던 최성수라는 가수의 '해우'와 '남남' 이라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뮤지컬을 좋아해서 뮤지컬도 많이 보러 다니고요. 안 본 뮤지컬이 없을 정도에요^^ 그리고 가수 경연 프로그램 을 좋아해서 토요일마다 하는 '불후의 명곡'을 챙겨봅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으로는 딸이 좋아 하는 최강창민이에요. 실제로 최강창민은 저희 집 아래에 살고 있어서 그 쪽 부모님과도 친하 답니다. 또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라서 그런지 배우 이동욱을 좋아합니다.

#### 15. 저희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은 어디 인가요?

제가 힘들 때마다 가는 곳은 Vision hall 옥상 인 하늘정원입니다. 예전에는 학교근처에 아파 트들이 없어서 해질녘쯤에는 아름다운 노을이 잘 보이곤 했지요. 요즘도 답답할 때에는 옥상 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며 기분전환을 합니다.

#### 16. 벌써 마지막 질문이라니 아쉬워요. 교장선 생님께 경기외고란?

저는 경기외고에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붓 고 싶습니다. 저는 여섯 시 반에 집을 나서서 일곱 시 반에 학교에 도착합니다. 다른 선생님 들은 모두 학교에서 밥을 먹지만, 저는 차 안에 서 밥을 먹습니다. 그럼 아침에 학교에 와서는 무엇을 하냐고요? 학교를 이곳 저곳 둘러보면 서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적합한 환경인지, 혹 시 학생들에게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없는지 살 펴봅니다. 저는 경기외고가 '내 것'이라는 생각 을 갖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 왔습니다. 경기외고란? 제 생활의 전부입니다.

▶ 전세현, 최희재, 최정연 기자

# 터키 대사관 단독 취재 대사님 인터뷰



외교관의 꿈을 키우는 친구들을 위한 특별 취재. 주한 터키 대사, Nacı Sarıbaş (\*나즈 사르바쉬) 를 만나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글로벌 인재라면, 그리고 외교관을 꿈꾸고 있는 경기외고인이라면. 협동과 화합의 시대에서의 '대한민국'을 궁금해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다른 나라들과 어떤 관 계에 있는지, 정상들이 나누는 회담에서는 어

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다른 나라의 정상들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뜨락에서 알아 보았다.

내가 찾아간 '터키'의 대사님은 한국에 대해 이 렇게 말씀하셨다.

"터키와 한국의 관계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형제국가 그 이상이다. 피를 나눈 형제이다."

작년 11월 7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는 터 키 대사관을 찾았다.

Nacı Sarıbas (\*나즈 사르바쉬, 이하 대사님)대 사님은 대사라는 직업에 대해, "대통령을 대신 하여 오는 사람으로 그에 맞는 예의와 자세로 행동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대사의 역할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원하자 '머무는 동 안 그 국가 내에 자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와 국 가 간의 상호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이라고 했 다. 그는 한국에 발령 받기 전, 뉴욕, 워싱턴, 룩 셈부르크, 빈, 파리, 로마 등 굵직굵직한 곳에 서 40년째 외교생활을 해온 분이다. 그런 그분 에게 한국의 수도 서울은 어떻게 다가왔을까. 그런 그가 느낀 한국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국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나라.

권나연 (이하 권):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려요 대사님.

한국, 직접 와보니 어떠신가요?

대사님: 더 할 것도 없는 좋은 나라다. 곳곳에 산이 있어 푸른 느낌이다. 나는 이곳을 마치 우 리나라인 것처럼 느낀다. 한 번도 온 적 없는 나 라인데 낯설지 않다.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은 없 다. 사람들은 조용하고, 교양이 있고, 따스하며 부지런하다.

그리고 사소한 것에 감동을 줄 줄 아는 사람들 이 산다. 한 여자가 있는데, 날마다 작은 상자 안에서, 지나가는 수백 대의 차량에게 표를 받 고 길을 열어주는 일을 한다. 그 길을 지나가 는 차가 수백 대, 수천 대는 있을텐데, 매번 '감 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한다. 사소한 것에도 감 사하다는 말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한국인들 은 정말 행복할 것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 는 나라다.

#### 권: 감사합니다. 터키와 한국이 형제의 나라라 고 불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 터키와 한국은 알다시피 아주 오래전부터 형제의 나라였다. 사실 형제의 나라 그 이상이 다. 터키인들은 한국인들과 피가 섞였다고 생각 하고 있다. 사실 터키인종 자체가 지금의 몽골 그 부근에서 내려왔고. 한국도 몽골인종이니. 같은 뿌리가 맞다. 그리고 한국전쟁 때, 수많은 터키 젊은이들, 20살, 아니 더 어린 18살, 19살 먹은 젊은이들은 한국에 가서 피를 흘렸다. 그 때 전사한 수많은 어린 병사들. 그들이 한국군 과 함께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키려 싸웠으니.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겠는가. 터키인들은 분명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한국을 좋아한다. 한번은 이런 적도 있다. 터키에 섬이 하나 있는 데, 너무 작아서 이름도 없는 그런 섬이다. 그런 데 그곳에 상점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Koreli (\*코렐리/한국인-터키에서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를 이르기도 함)'더라. 상점 이름이 왜 저 럴까 궁금해서 주인을 부르니, 정말 젊은 청년 이 나오더라. "왜 가게 이름이 Koreli 냐." 물으 니 "저희 할아버지께서 한국전쟁에 참전했었습 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고 기념하기 위해 그렇게 지었습니다."라고 했다. 터키인들 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는 조상님이 있다는 사 실만으로도 자랑스러워한다. 어디있는지도 모

르는 작은 나라를 도와주었는데 이렇게 커졌다 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참전 용사 자신 도, 아들을 잃은 어머니도, 아버지를 잃은 자식 들도, 살아 돌아온 참전용사가 있는 가족들도, 모두 한국을 '그리워하는' 무언가가 있다.

권: 한국전쟁 때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한국이 있었고, 현재 한국이 이뤄낸 발전도 있 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한국와의 관 계는 어떻게 되어 갈 것이라고 전망합니까? 국 제 사회에서 보는 한국의 위치가 궁금합니다.

대: 한국은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경제성 장을 이뤄낸 국가이기 때문에 터키를 비롯한 국 가들 모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우리 터키 정부의 경우에는 한국이 하는 모든 사업, 교육, 투자, 정책, 모든 것에 동참하고 싶어 한다. 한 국은 계속해서 더 나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확 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거리상으로 그리 가깝지 않지만, 우리는 형제의 나라가 아닌가. 앞으로 함께 하는 모든 국제 사업에서 한국과 터키의 서로 WIN-WIN 하는 상승효과를 기대 하다

외교관이 되기까지의 삶.

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사님, 대사님이 외교관을 꿈꾸게 되신 계기가 무엇입니까?

대: 그냥 외교관이라는 직업이 하는 일을 보고 자연스럽게 '외교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마음먹 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후, 외교관을 뽑는 시험을 봐서 선발이 되는 과정을 거쳤다.

#### 권: 그렇다면 혹시 외교관이 되는 과정 중에 기 억에 남는 것이 있나요?

대: 터키에서 치르는 외교관 시험 중에 이런 것 이 있다. 일단 외교관으로 선발되고 나서 거치 는 과정인데 정식 외교관으로 임명되기 위한 절 차이다. 그게 뭐냐면 지금의 나 같은 현직 외교 관들이 열 명 가량 앉아서 신입을 뽑는데, 자유 면접이다. 그날그날 묻고 싶은 질문으로, 시간 제한 없이 계속 얘기를 나눈다. 한참 선배들 앞 이니까 긴장도 되고.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몰라 계속 얼어있었던 기억이 난다. (웃음)

#### 권: 정말 특이합니다. 재미있네요. 그렇다면 혹 시 한국의 외교관 지망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씀은 있으세요?

대: 외교관은 만능이어야 한다. 뭐든 잘해야 하 는 직업이다. 크게 국제 정세를 읽는 것, 가볍 게 예를 들면 이 나라 대통령은 누가 될까, 만 약 이 사람이 되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 국제 경제가 어려워질까, 좋아질까 하 는 대외적인 것 외에도 사람을 대하는 방법, 지 내는 곳의 문화에 잘 적응하는 방법, 자국인들



의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낼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이런 모든 일을 할 때에는 '국가를 대신해서 온사람'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서 일을 해야 한다. 똑똑한 학생이라면 잘 해낼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대사님은 끝으로 '모두의 꿈을 응원한다.'고 하셨다.

대사님은 이날 2시간 가량의 시간을 내 주셨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 인터뷰 요청에 흔쾌히 허락을 해주신 주한 터키 대사님과 대사관 측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다.

나 또한 경기외고의 외교관 지망생 여러분 모두의 꿈을 응원하며, 끝으로 한 터키 시인의 시를 소개해 드리고 싶다.

▶ 권나연 기자

#### 진정한 여행

나짐 히크멧(Nazim Hikmet)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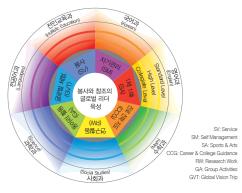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 GAFL 7 인증제에 대한 모든 것

#### 인성과 실력의 균형을 갖춘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한 경기외고의 교육과정

Rainbow Curriculum



필수 이수 교육활동		약어	주이수 시기	
1	봉사 Service	SV	1,2학년	①지역 봉사, ②국제 봉사, ③선택(재능) 봉사, 합계 60시간 이상 봉사
2	자기 관리 Self Management	SM	전학년	학교, 기숙사에서의 규칙 준수(벌점 관리)
3	1체 1예 Sports & Art	SA	1학년	1학년은 체육 및 음악예술 활동 필수선택, 2학년은 자율 선택
4	글로벌 체험 Global Vision Trip	GVT	1학년	봉사, 교류, 문화, 탐험 네 가지 영역을 주제로 하는 글로벌 비전체험 프로그램
5	동아리 단체활동 Group Activity	GA	1,2학년	전교생이 1개 동아리 이상 가입 및 활동
6	연구 Research Work	RW	2학년	연구 주제를 정하여 일 년 동안 논문 연구 및 작성
7	진로 진학 교육 Career & College Guidance	CCG	전학년	자신의 비전, 진로, 진학에 대한 탐색의 시간과 진로 진학 계획 수립

GAFL 7인증제는 경기외고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GAFL 7인증제는 '봉사와 창조의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한 필수 이수 과정'으로서 7개 영역의 교육활동으로 세분화 되어있다. 7개 영역의 교육활동 이수 여부에 따라 금장, 은장, 동장이 수여되는데, 학생

들은 이 제도를 통해 우수학생임을 객관적 자료로서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학생들이 GAFL 7인증제에 대해 잘 모른다. 그래서 교무부 이호영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의 GAFL 7 인증제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들을 풀어 보았다.

### 1. 일곱 개 항목 중 일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일곱 개 항목을 다 충족을 시키면 금장, 여섯 개 를 충족하면 은장, 마지막으로 다섯 개를 충족 하면 동장을 받게 된다

#### 2. 국제봉사 GVT을 가지 않으면 7 인증을 못 받는 것인가?

아니다. 필수 이수 교육 활동 중 글로벌 체험 부분은 '봉사, 문화, 탐험, 교류' 네 가지 영역을 만족시키는 기준에서 글로벌 국제봉사활동을 잘 해냈는지 보는 것이다. 그 기준은 3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인솔교사나 해당 기관에서 인증을 해줘야 한다. GVT를 가서 이수하는 것이가장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위의 봉사, 문화, 탐험, 교류의 영역을 충족시키는 대체 가능한 다문화 가정봉사 등의 활동을 찾고 담당 선생님께 승인을 받고서 이수 시간과 그 인증을 추후에 확인 받으면 가능하다.

#### 3. 그렇다면 봉사 항목의 국제 봉사는 GVT와 별개인가?

그렇다. 현재 봉사 항목의 국제 봉사는 GVT와 별개로 작용한다. 그러나 GVT를 다녀왔다면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 4. 벌점을 많이 받으면 7인증을 못받는가?

현재 3개년(5학기) 간 총 벌점 20점 이하(학기 당 9점 이하)를 그 규정으로 해 놓았는데, 이는 철저한 자기관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벌점을 많이 받으면 7인증 중의 하나의 영역인 '자기관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수 있다

#### 5. 학생들은 어떻게 'Research Work' 를 수행 할 수 있는가?

논문이라고 해서 100% 완벽하게 완성하라는 것은 아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수행하면서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분야나 관심 분야를 찾고, 그것을 더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깊이 있는 공부를 장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이러한 과정적인 측면을 좀 더 생각하고 시도 해보기를 바라다.

#### 6. 진로진학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

3년간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수업과 프로그램 들에 성실히 임한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 움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오재영 기자

# 첫사랑의 추억이 묻어나는 영화, 건축학 개론

스튜디오 '명필름'에서 제작된 〈건축학 개론〉 은 사실 흥행성을 두고 논란이 커 영화로 제작 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한국 멜로 영화 역대 흥행 1위 라는 기록을 세웠다. '첫사랑'을 소재로 조금 진 부하다고도 느껴질 수 있는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는 이 영화는 오히려 화려한 액션이나 볼거 리를 제공하지 않고서도 관객들에게 잔잔한 여 운을 남겼다.

20살, 건축학도를 꿈꾸는 신입생 승민은 건축 학 개론 수업에서 음대에 재학중인 서연을 만난 다. 하지만 소심한 성격의 승민은 서연과 대학 교 선배 사이에 대해 오해를 하게 되고,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한 채 헤어진다. 그 러다 15년이 흘러 만난 서연은 건축가가 된 승 민에게 아빠와 함께 살 집을 설계해 줄 것을 부 탁한다. 첫사랑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승민 은 서연의 부탁을 떨떠름하게만 여기지만, 서 연이 이혼하고 편찮으신 아버지를 모시며 살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된 뒤, 온 정성을 다하여 집의 설계와 건축 작업에 참여 한다. 대학생 시절 서연에게 약속한 집을 실제 로 재현해내면서 승민은 비로소 첫사랑의 아픈 추억을 치유한다.

상당한 세월이 흐른 뒤라 이미 약혼녀가 있는 승민, 그리고 이혼을 한 서연은 현실적으로 다 시 사랑을 이뤄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 나 관객들이 〈건축학 개론〉을 보며 가슴 뭉클 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이 루어지지 못한 사랑이라는 관점에서라기보다 는 엇갈린 사건으로 인해 생긴 오해가 승민과 서연에게 가했을 아픔에 공감했기 때문일 것 이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 〈건축학 개론〉은 때문지 않은 순수함을 간직한 첫사랑 을 잔잔한 향기로 승화시킨 영화였다.

▶ 허민지 기자





### 급식실 윤용노 조리실장님 인터뷰



#### Q1 무슨 일을 담당하 고 계신가요?

조리실장으로서 조리 지시와 감독 및 위생 관리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사님들 이나 조리사에게 서비 스 교육과 안전사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 니다.

#### Q2 보통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오전 8시 30분까지 출근을 해서 오후 7시에 퇴 근을 합니다.

### Q3 급식을 준비하시고, 정리하시고 남는 시간 이 있으신가요? 남는 시간이 있다면 무엇을 하

나머지 시간에는 다음날 업무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와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는 서류 가 많아서 남는 시간에는 서류를 정리합니다.

Q4 식사는 언제, 어떻게 하십니까?

학생들의 배식을 다 끝내고 정리하기 전에 교직 원식당에서 여사님들과 같이 모여서 먹습니다.

#### Q5 우리 학교 급식에서 가장 내세울 만한 급 식? 또는 우리 학교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급식 메뉴가 무엇인가요?

일단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면 요리를 주로 잘 만든다는 것입니다. 짜장면 이나 쫄면, 파스타, 스파게티 같은 면 요리를 맛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내세울 만하고 어떤 날 에는 파닭이나 피자 같은 특식이 나오는데 그 것이 우리학교 급식에서 가장 특별한 부분이라 고 생각합니다.

#### Q6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에 찰 때가 있다 면 언제인가요?

조리사(조리실장)의 입장으로서 당연히 학생들 이 우리가 만든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할 때가 가장 기쁩니다.

#### Q7 반면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 때가 있다 면 언제인가요?

날씨가 더울 때는 더워도 위생을 위해 조리사복

을 입고서 뜨거운 불 앞에서 조리하는 것이 힘 들고, 추울 때에는 재료를 찬물로 손질하는 과 정에서 힘듭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맛있게 먹 어주는 모습을 상상하면 힘이 납니다.^

#### Q8 많은 학생들이 분량이 얼마 없는 음식을 더 달라고 할 때의 심정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음식이 많이 남아있을 때는 푸짐하게 줄 수 있 지만 오버해서 주면 모자를 때가 있습니다. 학 생들이 더 달라고 해도 조금밖에 못 줄때는 미 안하고 예상보다 준비된 양이 별로 남지 않으 면 초조해집니다.

#### Q9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학생들의 생각이 조리사의 입장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급식실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100프로 잘 해준다고 해도 학생들이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2프로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 다. 그런 부분에서 몇몇 학생들이 불만을 표하 기도 합니다. 또 입장이 다르다 보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서로가 조금씩만 이해해줄 수 있다 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도형 기자

# 생그레 아름다운 웃음을 피워내는 '생그레'



▲ 생그레에서 직접 제작한 생그레 후드 점퍼와 부채.

듣기만 해도 왠지 모르게 살며시 미소 짓게 되 는 그 이름, '생그레'.

평소 우리에게 빨간 후드 점퍼와 부채로 더 많 이 알려져 있는 생그레는 어떤 동아리일까? 지금부터 우리 앞에 혜성처럼 나타난 동아리 '생그레'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 보기로 하자.

'생그레'는 '눈과 입을 살며시 움직이며 소리 없 이 부드럽게 웃는 모양'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아름다운 선플로 모두의 얼굴에 생그레 웃음이 피어 오를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지어진 이 름이라고 한다.

생그레는 선플 누리단으로서 현재 선플 운동본 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선플 문화를 널리 확산 시켜 바른 인터넷 문화 정착에 이바지 할 수 있 도록 하는 데에 활동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뜻을 이루기 위해 개인 단위의 활동 부터 교내외 행사 주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 동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생그레의 각 부원들 은 평소에 인터넷 뉴스와 블로그 포스팅 등 다 양한 게시물에 지속적으로 선플을 달며 선플운 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체육대회 특별 이 벤트를 비롯한 다양한 교내 캠페인을 벌임으로 써 선플 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기도 한다. 또한, 아인세(아름다운 인터 넷 세상 만들기) 거리 캠페인을 등을 통해 교외 에서도 선플 운동을 홍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15일 교내에서 월드비 전과 연계된 프로그램 '열린 기아체험'을 주관 하여 학생들에게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세계 어린이들의 고통을 전하고, 선플을 통해 그들 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지도 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렇듯 생그레의 선플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은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관심을 환기 하며 더 나아가 그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이끌 고 있다.

점차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고 타인의 고통에 공 감하지 못하는, 인간 소외 현상을 앓고 있는 현 대 사회 속에서 살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선플 문화는 '배려' 와 '상호 존중'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악성 댓글 문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시점에 타인을 배려하고 드높이 는 선플 운동은 세상을 보다 아름다운 곳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한다.

앞으로 세상에 생그레 더 많은 웃음의 꽃을 피 워낼 '생그레'를 기대 해 본다.

▶ 전나영 기자



▲ 5월 11일 체육대회 당일 교내 검색대에서 선플 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6월 16일 아인세 거리 캠페인 주간을 맞아 일 산 문화의 거리에서 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8월 15일 광복절 휴일 당일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기아체험을 주관하였다.



▲ 빈국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섯 번 째 생일을 맞이하기 ▲ 식량이 부족해 진흙을 주식으로 삼을 수밖 전 빈곤과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더없이 소중 한 '5'를 표현하고 있다.

에 없는 현실을 교육받은 후 직접 진흙쿠키 를 만들고 있다.



### 키워드로 보는 2012 체육대회











2012년 5월 11일 경기외고 1학기 최대의 행사 체육대회가 열렸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경기외고의 체육대회를 키워드로 살펴 보자.

#### 1. 경기 + 우승팀

여느 때와 다름 없이 이번 체육대회의 가장 큰 화두 역시 각종 운동 경기 와 그 성적이었다.

남자 경기로는 농구, 축구, 닭싸움, 여자 경기로는 발야구, 피구, 꼬리잡 기, 혼합 경기로는 배드민턴, 줄다리기, 계주가 치러졌다. 결승 경기답게 경쟁이 치열했으며 응원 열기도 뜨거웠다.

1학	·년	2학년		
농구	영중	농구	영중	
축구	중어	축구	영중	
닭싸움	일어	닭싸움	일어	
발야구	일어	발야구	영일	
피구	일어	피구	중어	
꼬리잡기	중어	꼬리잡기	중어	
배드민턴	영중	배드민턴	영중	
줄다리기	영일	줄다리기	일어	
계주	영일	계주	중어	
		2 1 1 1		







#### 2. 퍼레이드

점심 시간 이후 과별 퍼레이드가 진행되었다. 모든 과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퍼레이드였기 때문에 각각의 퍼레이드가 끝날 때마다 박수와 환호성이 끊이지 않았다. 심사 과정 중 착오가 발생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모든 학생들에게 추억으로 남을 퍼레이드였다. 특히 일어과는 1, 2학년 동시 우승이라는 기염을 토해냈다.

#### 3. 응원전

과별 응원전 역시 치열했다. 비속어를 사용하면 무조건 그 과가 패배한 다는 규정이 추가되면서 깔끔한 응원이 진행된 듯 했지만 판정이 석연 치 않거나 상대 팀이 반칙을 할 때는 예년과 다름 없는 거친(?) 응원을 보여주었다. 너무 열정적으로 응원한 나머지 목이 쉰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대회를 마치고 자신들의 자리를 깨끗이 정리하는 깨플리언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



#### 4. 동아리 이벤트

체육대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실내에서는 많은 동아리들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선플 동아리 생그 레에서는 선플을 홍보하며 선플 달기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추첨을 통해 매점 상품권을 증정했다. 광고 동아리 어드벤트에서는 슬러시를 판매하며 페어플레이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개그 동아리 ㅋㅋㅋ에서는 부채에 학생의 얼굴을 그려주는 독특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치열한 접전 끝에 1학년 종합 우승은 일어과, 준우승은 중어과가 차지했으며, 2학년 종합우승은 영중과, 준우승은 중어과가 차지했다. 2학년 영중은 작년에 이어 종합우승 2연패를 달성했기 때문에 의미가 남다르다. 경기외고 모든 학생들은 경기 예선을 치르고 퍼레이드를 준비하며 과의 단결력을 키웠으며 중간고사 이후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했다. 모든 행사가 종료된 이후 학생들은 뒷정리까지 깔끔히 해내 진정한 가플리언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입학 후 첫 체육대회였을 1학년에게는 신선함과 재미로, 학창 시절 마지막 체육대회였을 2학년에게는 아련함과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2012년 경기외고 체육대회였다.

# 2012 경기외고 체육대회

# MVP들과의 인터뷰 - 8기 최호동, 임도현, 9기 배예준, 윤기석

2012년 5월 11일, 경기외고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경기외고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축구, 농구, 피구, 발야구, 배드민턴, 줄다리기 외 장외종목 등 많은 종목이 열린 만큼 학생들의 참여율도 매우 높았던 체육대회였습니다. 강영 중 이사장님, 교장선생님의 개회식과 학생대표 의 선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체육대회가 시작 되었습니다. 그 중 단연 화제였던 것은 9기 일어 과와 영중과의 농구 결승이었는데요, 결과는 영 중과의 우승이였습니다. 영중과 mvp 배예준 선 수의 인터뷰를 들어 보겠습니다.

#### 1. 어떤 방식으로 연습을 했습니까?

농구 팀원들이 워낙 농구를 좋아해서 평소에도 농구를 그냥 즐기면서 많이 그리고 꾸준히 하였 습니다

#### 2. 배예준 선수가 농구를 정말 잘 한다고 들었는 데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1번에서 말했듯이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농구에 관심이 있고 좋아하여 즐겨 하고 꾸준히 하다보 니 실력이 늘었습니다.

#### 3. 언제부터 농구를 했습니까?

처음 시작한 건 키를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초등 학교 5학년 때부터 했고, 그 뒤로 재밌어서 지금 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 4. 선배들도 우승 했는데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선배님들처럼 저희도 내년에 꼭 우 승을 차지하겠습니다.

### 5. 경기외고 입학 후 첫 체육대회인데 소감을 말

먼저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고 처음 보는 골대 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긴장해서 제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지만 즐거웠 습니다.

이어서 8기 영중과와 영일과의 농구 시합이 있 었는데, 영중과가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영중과 농구 mvp 최호동 선수와의 인터뷰를 들어 보 겠습니다.

#### 1. 가장 궁금했던 질문! 키 크는 비결은?

유전적인 이유가 가장 크고요, 오렌지 주스를 많 이 먹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밥도 많이 먹고 열심히 운동하다 보니 키가 많 이 큰 것 같습니다.

#### 2. 경기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거의 50점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우리과는 기교 를 부리는 농구보다는 철저히 득점 위주의 게임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큰 점수차를 얻을 수 있 었습니다. 또한 평균키가 180cm 이상 이기 때 문에 타과에 비해 농구를 편하게 할 수 있기도 합니다.

#### 3. 농구를 엄청 잘 하시던데 비법에 대해 말씀 해주세요.

중학교 때 농구 선수의 꿈을 잠시 키웠을 정도 로 농구에 시간과 열정을 많이 쏟아 부었습니다. 안양시 대표로 농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1. 또한 전국 3위 팀과의 경기에서 승리했던 전력을 가 진 팀의 주전센터였기 때문에 실력을 증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 4, 9기 영중과도 농구를 우승 했습니다. 후배들 에게 한 마디 하신다면

너무너무 잘했어! 하지만 농구라는 건 항상 정 신력 싸움이야. 끝까지 이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임한다면 어떤 상대를 만나더라도 이길 수 있 을 거야. 물론 그 전에 팀원들을 철저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하고 진짜 농구는 과정이 중요한거 야! 파이팅!

### 5. 그리고 영중과의 체육대회 우승 소감 부탁드

일단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소 박해 보일 수 있는 우승이지만 그 안에서 너무 나도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게 되어 행복 합니다. 체육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더욱 페어플레이 하고 즐거운 체육대회가 계속 되길 바랍니다.

#### 6. 이번이 마지막 체육대회인데요 소감 한 마디 하신다면?

너무 아쉽죠. 경기외고에서 겪었던 너무 소중 한 경험 중 하나였는데 이렇게 끝이 나다니ㅠㅠ 그래도 두 번 다 우승으로 끝내서 기분이 너무 좋 고 경기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영중과 파이팅!

그 후에는 9기 중어과와 영중과의 축구 결승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2대2 접전 끝 중어과의 승 부차기 승이였습니다. mvp 윤기석 선수와의 인 터뷰입니다

#### 1. 골을 넣으셨는데 소감을 말해주세요.

골을 넣을 때 마다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 기분 때문에 축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2. 페널티킥을 찰 때의 긴장감을 말해주신다면? 제가 찰 때에는 별로 긴장하지 않았지만, 동료 들이 찰 때는 매우 긴장했습니다. 특히 우리팀이 넣지 못했을 때는 질 줄 알았지만, 상대팀도 못 넣고 이기게 되어 매우 기뻤고 다행이었습니다.

#### 3. 어떤 방법으로 연습을 하셨나요?

점심시간, sa시간, 저녁시간 등 시간이 날 때마 다 꾸준히 축구 연습을 했습니다. 다른 반들이

나 선배님들과 경기를 하며 실력을 키워나갔습 니다.

#### 4. 첫 체육대회 소감을 말씀해주신다면?

처음으로 퍼레이드도 해보고, 종목도 매우 다양 해서 재밌었고, 아쉬웠던 부분도 많습니다. 내년 엔 꼭 우승을 하고 싶습니다.

#### 5. 경기컵의 각오를 말씀해주신다면?

모든 과들이 노력하고 있을테니, 저희는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뒤이어 마지막 주요 경기인 8기 영중과와 일어 과의 축구 결승전이 있었는데요. 1대1로 비긴 후 승부차기에서 영중과가 승리했습니다. 마지 막으로 영중과의 mvp 임도현 선배님과의 인터 뷰를 해보았습니다.

#### 1. 작년에도 우승 하셨다고 들었는데 2년 연속 우승 하신 소감 한 마디 부탁드려요.

고등학교 3년 동안 두 번 있는 체육대회에서 모 두 우승을 해서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과에서 축 구를 잘하는 몇몇 친구들이 전학을 가면서 전력 이 약해졌다고 평가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하게 되어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 2.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주요 경기 내용을 간략 하게 말해주세요.

전반 초반에 우리과가 코너킥을 골로 연결시켰 지만 5분 정도 후에 일어과가 프리킥을 성공시 키며 1대1로 비긴 채 승부차기로 들어가 승부차 기에서 영중과가 승리했습니다.

#### 3. 2년 연속 우승하신 비법과 연습 비법에 대해 말해주세요.

비법같은 건 딱히 없고 평소에 축구를 많이 한 것 이 도움이 됐습니다.

#### 4. 1학년 후배들은 아쉽게 졌는데 위로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1학년 후배들도 승부차기까지 갔는데 져서 매 우 아쉽습니다. 앞으로 경기컵도 있고 체육대회 도 남았으니 열심히해서 남은 대회 다 우승했으 면 좋겠습니다.

#### 5. 세리머니가 조금 도발적 이였는데 누가 어떻 게 생각하셨나요?

저희끼리 의미있는 세레머니를 생각하다가 골프 세레머니를 하게 된 것입니다.

#### 6. 이번이 2학년 마지막 체육대회인데 소감 한 마디 부탁드려요.

마지막 체육대회여서 더 우승하고 싶었는데 우 승하게 되어서 더욱 뜻깊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서 경기컵도 우승하고 싶습니다.

▶ 임동일 기자



## 의왕에서 여수까지, 1박 2일의 소중한 이야기



작년 7월 11일~12일, 힘들었던 1학기 기말 고사가 끝난 직후 경기외고 2학년은 Pride of Korea 활동으로 여수엑스포를 관람하기 위해 여수로 떠났다. 의왕에서 여수까지는 무려 4시 간. 불편한 버스 속에서 우리는 힘든 줄도 모 른 채 시험이 끝났다는 기쁨에 무작정 웃고 떠 들었다

길고 긴 여정 끝에 드디어 도착한 여수. 제일 먼 저 우리가 향한 곳은 맛있는 곳이 많다는 국제

관이었다. 비록 식당 고르기에 실패해 일본 음 식점에 가서 느끼한 저녁을 먹었지만, 저녁 먹 은 후 구경한 미국, 캄보디아, 호주 등의 많은 전시관들은 화려하고 신기한 장식들로 우리의 불만을 금새 잠재웠다. 제일 인상 깊은 곳은 미 국관 이었는데,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국무 장관의 환영 인사와 남녀노소의 사람들이 'This is my ocean' 이라고 말하는 영상은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해양 박물관에 가서 선 사시대부터 미래까지 해양의 역사를 보고, 만 져보는 등의 활동으로 우리가 평소 잘 느끼지 못했던 바다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마지막 엔 BiG O쇼를 봤는데, 물과 불이 함께 어우러 지는 모습이 매우 아름다웠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우리는 숙소인 순천대학 교 기숙사로 이동했다. 대학의 좋은 숙소에서 우리 밤이 깊어가는 지도 모르고 이야기 꽃을 피웠다

다시 버스에 올라 탄 시간은 아침 8시. 시험기 간이 끝나고 쉬지도 못한 직후이지만, 엑스포 에 다시 도착하니 신기하게도 몸이 다시 가벼 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맛있는 부대찌개 를 먹고 다시 관람을 위해 이곳 저곳을 향했으 나 곳곳마다 줄이 길게 서 있어 관람하기가 쉽 지 않았다.

여수 엑스포 PK는 우리에게 새로운 추억을 안 겨주었다. 힘들고 괴로웠던 시험이 끝나고 친 구들과 함께 여수라는 새로운 곳에서 엑스포도 관람하고 가수 인순이의 공연도 즐기며, 해양 지식이 풍부해진 것은 물론, 한층 더 깊어진 우 정을 쌓을 수 있었다. 비록 학교에 도착하자마 자 성적 꼬리표가 우리를 반겨주었지만, 의왕 에서 여수까지. 그 1박 2일은 정말 행복한 기억 으로 남을 것이라 확신한다.

▶ 정성원 기자

# 9기의 정동극장에서의 Pride of Korea 새로운 춘향전을 만나다

9기의 정동극장에서의 Pride of Korea - 새로운 춘향전을 만나다

2012년도 마지막 시험을 끝마치고 경기외 고 9기 학생들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Pride of Korea(PK) 체험을 위해 정동극장으로 향했다. 정동극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극장을 복 원하기 위해 지어져서 그런지 극장입구부터 전 통적이면서 한편으로는 고급스러운 모습을 지 니고 있었다. 공연장 내부는 생각보다 좁았지 만 무대 위는 춘향과 몽룡의 약속장소인 정자도 있었고 정자 아래에는 연못처럼 보이는 공간도 있었다. 이번에 9기가 본 극은 〈미소춘향연가〉 로 춘향과 몽룡의 애틋한 사랑과 그것을 질투 하는 사또의 이야기를 담은 춘향전이었다. 모 두가 아는 춘향전 이야기 이지만 정동극장에서 의 춘향전은 굉장히 색다른 느낌이었다. 우선 주인공들은 말이 없었고 오직 몸짓과 표정으 로 연기하였다. 비록 말은 없었지만 주인공들 의 뛰어난 마임과 중간 중간 춘향과 몽룡을 이

어주는 춘향의 어머니인 월매역할의 배우만이 소울(?) 가득한 목소리로 판소리 하듯 노래하 며 극의 몰입도를 높였다. 특히 현장에서 연주 되는 국악과 배경음악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배우들의 의상과 헤어스타일들이 매우 인상 깊 었다. 또 춘향과 몽룡의 사랑의 매개체인 춘향 의 하녀 향단과 몽룡의 하인 방자의 귀여운 연 기와 은근한 러브라인은 극의 감초같은 역할을 하였다. 사또인 변학도의 부하역할을 하는 연 기자가 사또에게 두루마기를 전할 때 추던 마이 클잭슨의 〈빌리진〉이 국악으로 연주될 때와 무 용인들이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할 때는 9기가 한마음이 되어 웃으며 호응하였다. 중간에 1반 의 김윤한 학생과 8반의 조유정 학생이 무대에 올라가서 단원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생각보 다 단원의 쟁반돌리기를 잘 따라하며 재미와 볼 거리를 더해주었다. 극이 춘향과 몽룡의 사랑 이 이루어지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때에는 환호 하면서도 벌써 끝났다는 마음에 아쉬움도 느껴 졌다. 하지만 무대가 끝나고 배우들과 함께 사





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것으로나마 아쉬움을 달래 수 있었다. 누구나 한번쯤 들어 봤을 춘향전이지만 〈미소춘향연가〉는 더욱 전 통적이고 아름다운 우리의 정서로 마음을 두드 리는 색다른 춘향전이었다.

▶ 최희재, 전세현 기자



### 겟잇뜨락

경기외고 학생들이 여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초화장 제품들을 겟잇뜨락이 조사하여 순위 를 매겨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화장품 이기 때문에 고가의 브랜드 화장품보다는 학생 들이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이 주로 순위에 올라왔습니다.

제일 먼저, 덥고 습기가 많은 여름 날씨에 피 부를 깨끗이 해주는 클렌징 폼 순위를 알려드 리겠습니다.







1위: 이니스프리 화산송이 클렌징 폼

2위: TN 클렌징 폼

3위: 우테나마유 클렌징 폼

모공 깊은 곳까지 깨끗이 해준다는 기능들이 강 조되어 판매되는 제품들이 1.2.3 순위를 차지 했는데요. 여름엔 덥고 습기 찬 날씨 때문에 얼 굴에 쌓여있는 노폐물들과 균들이 퍼져서 얼굴 이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세수를 꼼꼼하게 해 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학생들 의 피부는 피지와 노폐물이 과다 분비되기 때 문에 더더욱 클렌징이 중요합니다. 한 방송에 서 가수 미스에이 수지양이 자신의 세수 비법 인 '10분 세안법'을 공개해 화제가 된 적이 있 습니다. 수지의 '10분 세안법'은 얼굴에 쌓여있 는 노폐물들을 깨끗이 제거해주며 트러블 피부 에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 는 건 어떨까요?

#### 수지의 10분 세안법

10분 중 처음 4분은 오일 마사지를 해 서 피부 속 노폐물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얼굴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 뒤 2분동안



거품을 손으로 풍성 하게 내서 거품 세안 을 해줍니다. 그리고 남은 4분 동안 미지근 한 물에 거품을 씻어 줍니다. 미지근한 물 에 다 씻겼다 생각하 지 말고 4분간 충분히 헹구어야 합니다

스킨 사용 후 사용하는 로션 순위를 알아봤습 니다.







1위: 클린엔클리어 모이스처 로션

2위: TN 로션

3위: 크리니크 노란 로션

크리니크 제품 같은 경우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 다소 비싸긴 하지만 그만큼 성능이 뛰어나서 학 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크리니크라는 브랜드 자체가 트러블이 나기 쉬 운 예민한 10대의 피부에 알맞는 순한 제품들 이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도 많은 학생들이 애용 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TN 제품은 마트에서 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해 당 회사에서 아예 10대들을 공략해서 만든 제품 이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물론 저 렴하다고 다 인기가 있을 수는 없겠죠? 저렴한 가격만큼이나 10대들을 위한 뛰어난 성능 때문 에 저희 겟잇뜨락에서 2위를 차지할 만큼 인기 를 얻고 있는 제품인 거 같습니다. 클린엔클리 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많은 학생 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 TN제품과 더불 어서 찾기 쉬운 제품이며 또한 성능도 오래 전 부터 인정받아 왔기 때문에 당당히 1위를 차지 했습니다.

로션 다음에 바르는 수분크림도 학생들이 놓치 지 말아야 할 기초화장품들 중 하나입니다! 저 렴한 가격의 수분크림들도 고가의 브랜드의 제 품들 못지 않는 성능을 뽐내서 학생들에게도 부 담이 되지 않아 학생들이 부담 없이 사용하고 있 습니다. 순위를 알아볼까요?







1위: 이니스프리 그린티 퓨어 크림

2위: 더 페이스샵 아르생뜨 에코테라피 빙상수

젤크림

3위: 라네즈 웰뱅크젤크림

3위인 라네즈 제품인 경우 학생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제품이기도 하지만 비싼 가격만큼 효과를 톡톡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 덕 분인지 많은 학생들이 이 제품을 애용하고 있 는 거 같습니다. 더 페이스샵 제품은 저렴한 가 격에 비해 뛰어난 성능 때문에 2위를 차지할 만 큼 학생들의 사용도가 높습니다. 또한, 이니스 프리 제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입소문을 타 고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 제품 이며, 해당 브랜드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를 만큼 인기가 대단하다고 해서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하 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우리 GAFLIAN들이 애용하는 메이크업 제품들은 뭐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 다. 체육시간에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활동을 하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선크림 브랜드를 가 장 선호할까요?







1위: 스킨푸드 2위: 더 페이스샵

3위: TN

자외선은 기미가 생기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콜 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여 피부의 탄력을 떨 어뜨리고 주름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아직 어 리다고 해서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야외활동을 한다면 나중에 기미로 가득한 얼굴이 비친 거울 을 보면서 분명히 후회하겠죠? 앞으로 아무리 바빠도 외출 전 기초화장 후 선크림은 꼭 바르 고 외출을 하도록 합시다! 여자의 기본 아니겠 어요? 남자도 물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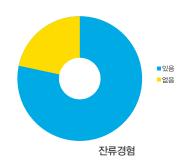
▶ 이유진, 김관희, 안수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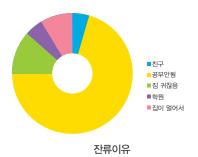
### 잔류설문 그래프

여러분은 경기외고에서 생활하면서 잔류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나요? 잔류를 해보셨나요? 경기외고 신문동아리 뜨락에서는 이번 신문에서 '잔류'를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에 앞서 이번 설문 조사는 8기, 9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잔류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설문에서는 267명이 그렇다, 67명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경기외고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 잔류를 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잔류를 왜 하나요'라는 질문에서는 상당 수의 학생들이 집에 있으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무려 195명의학생들이 학업 때문에 잔류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니다. 또한, 짐을 치우기 귀찮아서 잔류를 한다는 학생이 30명으로 예상 외로 두 번째의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에 연달아 '집이 멀어서'가 23명, '학원 때문에'가 14명, 마지막으로 '친구 때문에'가 12명으로 가장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잔류한 것을 후회할 때'의 질문에서는 '잔류 했는데 한 것 없을 때'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무려 143명의 학생들이선택을 해 주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보고싶을 때', '피곤을 풀지 못할 때'가 각각 59명, 56명으로 비슷하게 선택을 해 주었습니다. 또한, 아플 때 잔류를 후회한다는 응답이 예상 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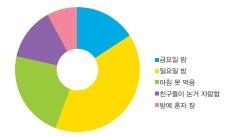
적게 나왔는데, 29명의 학생이 선택을 해 주었습니다. '급식이 맛없을 때' 역시 18명으로 적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번째로, '잔류 중 가장 슬플 때는 언제입니까?'라는 질문에서는 귀가한 아이들이 들어오는 일요일 밤을 가장 많은, 108명의 학생들이 선택했습니다. 반면, 불금(불타는 금요일 밤)은 낮은 수치인 43명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늦게 일어나 6시 30분부터 제공하는 아침 급식을 못 먹어서 슬프다는 의견이 62명, 친구들이 논 것을 자랑할 때가 38명, 밤에 혼자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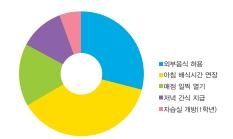
는 것이 서럽다는 의견은 21명의 학생들이 선

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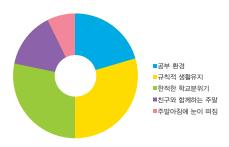
잔류 중 가장 슬플 때

다섯 번째로, 비록 학교 규정 상 허용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잔류를 하면서 바라는 것'에 대한설문 조사에서는 역시 네 번째의 설문 조사 결과에 이어 '아침 배식 시간 연장'이 81명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외부 음식 허용'이 63명, '매점 일찍 열기'가 35명, '저녁 간식 지급'이 25명, 1학년 9기의 경우 '자습실 개방'이 12명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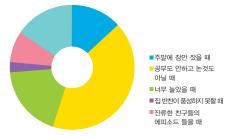
잔류에 이런게 있었으면!

여섯 번째로, '잔류의 긍정적인 효과'를 묻는 설문에서는, 88명의 학생들이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서'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한 이에 못지 않은 80명의 학생들이 '한적한 학교분위기'를 이유로 선택했습니다. 잔류를 하면 평소보다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어 편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부 환경'을 59명이, '친구와 함께하는 주말이 좋다'를43명이, 마지막으로, '주말 아침에 신기하게도 눈이 떠짐'을 20명의 학생이 선택했습니다.



잔류 가장 좋은 점

마지막으로, '산류를 안 한 것을 후회할 때'를 묻는 설문에서는 90명의 학생들이 '공부도 안하고 그렇다고 논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싫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40명의 학생들은 '더무 놀아서', 28명의 학생들은 '주말에 잠만 자기 때문에', 17명의 학생들은 '잔류한 친구들의 재밌는 에피소드를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단 6명의 학생들이 '집 반찬이 풍성하지 못해서'를 선택하였습니다. 이 모든 이유를 막론하고, 잔류를 하지 않는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33명이나 되었습니다.



잔류 안한 것을 후회할 때

▶ 이지완, 유수진, 이지윤, 황수림 기자



### 몽골 GVT









GVT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먼저 지불하는 돈이 만만치 않고, 바뀐 입시제도 때문에 해외봉사는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없다는 옹졸한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GVT에 대한 불평들이 많던 우리들은 막상 봉사를 다녀온 후에는 그 불평이 쏙들어갔다.

봉사를 할 때 우리는 4개의 조로 나누어서 조마 다 평일에는 학교, 주말에는 교회에 방문하여 몽골 현지인들에게 봉사를 하였다. 내가 속해 있던 조는 4개의 조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또래 의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봉사를 하 였다. 봉사를 하러 가기 전, 어린 아이들에게 봉 사를 하러 가는 것인 줄 알고 모두 어린 아이들 을 위한 수업 물품들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봉사 를 시작하기 전 우리와 또래라고 하는 몽골 아 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어른같이 보였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지 막막했다. 하지만 이틀 째 되던 날, 그 전날과 같이 칠판 앞에 서서 한국 어 선생님이 된 우리들은 몽골 학생들이 우리들 에게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한국어를 배울 열 정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알고 보니 몽골에서 는 영어보다 한국어를 더 자주 쓸 정도로 한국 어가 널리 알려져 있고 또한 한국 음식점들도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한국에 익숙해져 있었다. '가나다라'부터 시작해서 회화 까지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기본 회화는 꽤나 알고 있어서 가르치는 게 너무 재밌었고 서로 "사랑해요."라고 하면서 장난도 많이 쳤다. 그렇



게 하루하루 정들어 가면서 수업을 하였고, 봉사 3일째 되는 날 우리끼리 차에서 즐겨 하던 홍삼게임을 몽골 학생들에게도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 그들에게 홍삼게임을 알려줬다. 처음엔 이해를 못해서 게임 진행이 잘 안됐지만 몇 분지나니 우리들 없이도 자기들끼리 홍삼게임을 한국사람 못지않게 맛깔나게 하였다. 심지어 점심시간에도 자기들끼리 둥글게 원을 만들어서 홍삼게임을 하였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 이것도 한국의 문화 중 하나야,'라고 생각하며 엄청 뿌듯해 하였다. 학생들과 물충놀이도하고, 함께 K-POP춤을 추면서 같이 신나게 놀기도 하였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4일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헤어질 시간이 찾아와 버렸다. 작별인사를 할 때 몇몇 학생들은 눈물 까지 보였다. 한 아이가 우리가 언제 출국을 하 는지 물어봤다. 대답을 해줬더니 자기들끼리 몽 골어로 뭔가에 대해 신나게 얘기 하더니 우리에 게 출국하는 날 공항을 찾아오겠다고 하였다. 출국하는 시간이 새벽이어서 피곤할 거라고 오 지 말라고 마음만 고맙게 받겠다고 했지만 애들 이 원래 몽골 사람은 한번 한 약속은 끝까지 지 킨다며 고집을 피웠다. 그렇게 진짜 헤어질 시 간이 다가와서 학교를 나갈 시간이 다가왔다. 한 명씩 한 명씩 포옹을 나누었는데, 몽골 아이 들이 먼저 "사랑해요. 잊지 말아요."라고 해서 결국 학교는 눈물바다로 변해버렸다. 그렇게 힘 겹게 차에 올라타서 창문을 열고 잘 있으라고 손 을 흔들면서 진짜 마지막 인사를 했는데, 몽골 아이들이 너무 울어대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린 차 안에서 완전 눈물, 콧물을 다 쏘옥 뺐다. 하지만 SNS를 통해 아직까지도 몽골 친구들과 안부를 물으며 연락을 하고 지낸다.

주말엔 교회에 봉사를 갔다. 이번엔 진짜 어린 아이들에게 봉사를 했다. 몽골 아이들이 워낙 순수하고 낯가림이 없어서 처음 보는 우리에게 도 잘 안기고 심지어 뽀뽀 세례까지 했다. 자기가 먹던 사탕을 내 입에 넣었다가 또 다시 자기입에 넣을 정도로 매우 천진난만한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돌보는 내내 행복했었고 같이 물방울 놀이를 하고 미니물총놀이를 하는 내내 동심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어서 정말좋았다. 아이들이기에 한국어를 가르쳐봤자 못따라올 거라고 생각한 우리가 틀렸다. 가나다라는 물론이거니와 회화도 곧잘 따라 해서 너무 놀라웠다.

그렇게 교회 아이들은 이틀 동안만 봉사를 했는 데도 정이 많이 들어서 헤어질 때 너무 슬펐다. 늘 함께 하며 통역을 해주시던 몽골 대학생 언 니 오빠와 얼마 전에 채팅을 했는데, 교회 아이 들이 한국 선생님들 언제 오냐고 항상 물어본다 고 한다. 출국하는 날, 버스가 공항에 도착하고 조원 2명이 먼저 내려서 공항 안에 들어왔는데, 다시 버스로 뛰어와서는 몽골친구들이 진짜 왔 다고 소리쳤다. 우리 조원들은 바로 공항 안으 로 들어갔고 몽골 친구들을 만나자마자 얼싸 안 고 기쁨을 나누었다. 우리 모두에게 몽골 기념 품까지 주고 몇몇 아이들은 가장 친하거나 좋 아하는 조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선물이나 그림 을 그려서 줬다. 새벽 이른 시간에 정말 공항까 지 배웅을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어 쩌면 학교 프로그램 중의 일부이므로 형식적인 잠깐의 인연이었을지도 모르는 그 만남을 그들 은 진심으로 우리를 대했고, 그 소중함을 일깨 워준 것이다. 언어는 결코 소통의 장벽이 될 수 없으며 진심은 통한다는 말이 새삼 가슴이 들어 와 박혔다. 많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내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몽골에서의 하루하루를 몇 번이고 되 새겨보았다.

▶ 김관희 기자



### 알래스카 GVT 후기

2012년 처음으로 GVT 본교교사기획에 알래 스카가 새로 생겼다. 안종협 선생님이 모든 기 획을 하셨고, 크루즈라는 엄청난 일정이 함께 있었다.

7월 13일, 경기외고의 여름 방학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기숙사를 떠난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비행기에 올라야 했다. 목적지는 캐나다 밴쿠버. 중국 상해를 경유해서 가야 했다. 하지만 기계 결함, 날씨 등의 이유로 경유 시간은 계속 늘어만 갔고 결국 크루즈를 탈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상황까지 갔다. 우리는 밴쿠버에 3시에 도착하게 되었고, 크루즈 탑승시간은 3시였다. 하지만 다행히도 크루즈의 출발이 늦어져 우리는 간신히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었다. 크루즈의 이름은 '사파이어 프린세스 호'.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린세스 선사에서 만든 크 루즈 중 가장 큰 선박이라고 한다. 자그마치 11 만 여 톤에 17층 건물 높이라니! 직접 보니 그 규모가 엄청났다. 그렇게 해서 밴쿠버→알래스 카 앵커리지까지의 일주일 크루즈 여정이 시작 되었다. 첫 정박지인 케치칸(Ketchikan) 까지 가는 길이 멀었기 때문에 정박 계획이 없어서 첫째 날과 둘째 날은 크루즈 내에서만 지냈다.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Teens' club'이란 곳 에서 게임도 하고 친구도 사귀며 즐거운 시간 을 보냈다. 둘째 날은 Formal Day 였다. 모두 들 정장 차림으로 갖춰 입어야만 식사가 가능 한 날이었다. 우리는 모두 원피스와 정장 차림 을 하고 세상에 단 세 곳뿐이라는 스파게티 전 문점 '사바티니'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밖 에서 사진을 찍고 노을이 지는 것도 보았다. 하 지만 17시간의 시차는 우리를 시시때때로 잠에 들게 만들어 하루의 반을 침대 위에서 보내기 도 했다. 셋째 날, 드디어 케치칸 도착! 한적하 고 아기자기한 도시였다. 알래스카는 추운 곳 이라는 생각만 했는데, 시기가 여름이라 그런 지 꽤 따뜻했다. 크루즈 앞에서 사진도 찍고, 우리는 버스를 타고 'National Forest' 란 곳에 도착했다. 공기도 맑고, 모든 것이 푸른빛이어 서 눈이 정화되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은 알래스카의 대표 명소 주노(Ju-



neau)! 우리 모두 빙하를 보러 떠났다~ 전날 보다는 좀 싸늘한 날씨였다. 다른 관광객들이 모두 버스를 타고 갈 때 우리는 한 시간 넘게 그 추운 길을 곰이 나올까 걱정하며 걷고 걸어 서 관광지에 도착했다. 비록 힘들긴 했지만 도 착했을 때의 그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다! 빙하 를 눈으로 직접 보게 되니 정말 신기했다. 사진 으로는 전부를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 고 예뻤다. 빙하 조각도 직접 만져보고, 강 앞 에서 수달도 포착했다. 대표 명소답게 사람도 많았고, 기념품 종류도 많았는데 돈이 없어서 엽서만 엄청 산 것 같다. 우린 그 먼 길을 다시 걷고 걸어 돌아간 후에 버스를 타고 코스트코 에 갔다. 다섯째 날은 스캐그웨이(Skagway)! 사실 그 날도 오전부터 일정이 짜여 있었는데 취소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생님이 주신 벌이었기 때문이다. 케치칸에서부터 지각한 학 생들이 매 집합 때마다 한두 명씩 있었고, 전날 밤 점호집합 때도 반 이상이 안 온 것이었다. (사실 나도 깜빡 잠들었다가 지각을 했다.) 우 린 점심 때 모여서 벌을 받으러 산에 갔다. 산 을 오르고 또 오르고 어떤 강 앞에 도착해서 우 린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고, 모두가 반성했다. 그리고 그 때부터 조별로 다니면서 조장인 나 의 임무가 막중해졌다. 그 날은 드디어 제대로 된 빙하와 피오르드를 보는 날! 'College Fjord' 란 곳을 지나면서 멋진 경치를 감상하는 것이 그 날의 가장 큰 일정이었다. 피오르드라는 것 을 중학교 때 과학책에서 글로만 봤지 실제로 는 어떤 것인지를 잘 몰랐는데, 직접 보니까 진 짜 아름답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았다. 막 찍 어도 작품일 정도로 너무 멋있고, 하늘도 파랗 고 맑아서 모든 것이 그림 같았다. 비록 바람 이 거세서 춥고 머리도 다 헝클어지고 꼴이 말

이 아니었지만, 그 풍경들은 우리가 정말 자 연에 비하면 작은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 는 듯 해 보였다. 다음 일정은 우리의 봉사! "FREE MASSAGE"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우 리는 배에서 왔다갔다하며 안마 봉사를 하였 다. 나는 어떤 서양인 부부를 안마하게 되었다. 아내 분이 우리에게 학교에 대해서도 묻고 이 것저것 물으시더니 선생님을 찾으셨다. 그리 고나서 하신 말씀이, 본인은 현재 이스라엘 학 교 영어교사이신데, 우리가 한국에서 외국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함께 교류하 고 싶다는 것이다! 우리는 매우 신기해하면서 함께 사진도 찍고, 그 분은 선생님과 한참 얘 기를 나누는 듯 싶으셨다. 그 다음에는 우리와 동갑인 "Danny"라는 한 외국인 남자아이와도 친해졌다. 그렇게 그 날의 일정을 또 마무리하 고 벌써 크루즈에서의 마지막 밤을 지내는 일 곱째 날이 왔다. 별다른 일정이 없었기에 쉬면 서 마지막 Formal Night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지막 날인 만큼 다같이 갖춰 입고 모여서 식 사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그렇게 아쉬운 마 음을 달랬다.

이제 또 다른 여정의 시작! 크루즈는 끝이 나 버렸지만, 이제 진짜 알래스카의 생활이 시작 된 것이었다. 우리는 크루즈 하선 후 조별로 차 를 타고 앵커리지로 향했다. 어떤 목사분의 도 움으로 우리는 한 교회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 다.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이었고, 이동하느라 시 간도 지체된 상태여서 우리는 월마트에서 재료 를 사다 저녁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애들과 함 께 저녁으로 라면과 김치볶음밥을 했다. 요리 에 이것저것 넣고 밥도 급하게 지었지만 배고 파서 그런지 다들 잘 먹었다. 다음 날 아침은 조장 2명이 일찍 일어나서 직접 맛있는 김치찌 개와 밥을 했다. 그렇게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Denali 국립공원으로 떠났다. 원래 일정은 그 곳에서 캠핑을 하는 것이었는데 비가 오는 바 람에 어떻게 될 지는 확실치 않았다. 산 중턱 쯤 올랐을 때 날씨가 괜찮았지만, 알래스카의 날씨가 워낙 변덕스럽고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캠핑을 하는 것은 사고위험이 있다 는 의견들이 많아 캠핑을 못할 것 같다는 결론 이 나왔다. 그렇게 아쉬움을 뒤로하고 우리는 'Talkateena'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각종 기프트샵이 많아서 이곳 저곳 둘러보다가 선생 님의 제의로 신나게 래프팅을 체험했다. 그렇 게 또 하루가 지나고, 앵커리지에서의 마지막 날도 찾아왔다. 마지막 날의 일정은 또다른 봉 사활동, 앵커리지 한글학교 방문이었다. 사실 출발하기 전 각자 한글 책 2권씩을 준비하도록 되어있었는데 바로 이 날을 위한 것이었다. 우



리는 책을 기증하고, 나란히 앉아 이사장님의 한글과 영어가 섞인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한 글학교를 이곳저곳 둘러보았다. 한국어 책이 학년 별로 비치 되어 있는 게 뭔가 신기했다. 우리도 한국어를 배우긴 하지만 사뭇 다른 느 낌이었다. 한글학교는 방과 후 수업처럼 주말 에만 수업이 이루어지는 주말학교인데 이곳에 는 외국인 아이들도 한글을 배우러 온다고 한 다. 한국인으로서 뿌듯해지는 순간이었다. 이 렇게 앵커리지에서도 일정이 모두 끝나고, 앵 커리지 공항에 도착한 후, 앵커리지→시애틀, 시애틀→밴쿠버, 밴쿠버→중국 상해까지 무 려 비행기를 3번이나 타며 우여곡절 끝에 중 국에 도착했다. 17시간의 시차도 사라지고 비 행기를 워낙 오래 타다 보니 그냥 하루가 훌쩍 지나가버렸다. 그렇게 중국에 와서 상해의 야 경을 감상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 다음날 은 주장에 가서 골목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짤 막한 중국어를 써보기도 했다. 한가지 힘든 점 이 있었다면, 추운 알래스카에서 갑자기 환경

이 변하니 너무 더웠 다. 그렇게 주장을 다 둘러보고 공항으로 출 발하여 드디어 한국으 로 돌아왔다. 부모님 을 2주 만에 뵙는 거 라 너무 반가웠지만 하편으론 알래스카 팀 친구들과 헤어질 생각 에 너무 아쉬웠다. 다 시는 경험해보지 못 할 크루즈 여행과 다 사다난했던 알래스카 GVT! 너무 즐거운 여 행이었다. 비록 처음 엔 힘들어서 집에 가

고 싶단 생각도 했지만, 난생 처음 외국인 친구 도 사귀어보고 잘하진 못해도 요리조리 영어와 중국어도 써보고, 정말 많은 걸 보고 배운 여행 이었다.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끝난다는 생각



에 아쉬움도 컸고, 내 평생에 좋은 기억, 경험 으로 남을 것 같다. 알래스카 GVT 짱!♥

▶ 이지완 기자

# 목요 음악회 음악이 있는 목요일



경기외고의 1학기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에는 강당에서 목요 음악회가 진행된다. 약 두 달간, 교내 공연 동아리들은 지정된 일정에 맞춰 약 30분간의 공연을 선보였다. 많은 학생들이 더 가까이에서 공연을 즐기고 감상하기 위해, 또 는 친구를 응원하기 위해 점심 시간을 알리는 종이 치자마자 달려 나갔다. 2학기에 축제가 있 다면. 1학기에는 목요 음악회가 있어 가플리언

들의 학교생활 활력소가 되어 주었다.

피아노 동아리 '아다지오', 록밴드 'RH-', 춤 동 아리 'Steelo', 힙합 동아리 'DTAHWU', 노래 동아리 'Seiren' 그리고 풍물 동아리 '추임새'까 지 다양한 동아리의 공연을 5월과 6월 두 달에 걸쳐 매주 목요일마다 즐길 수 있었다. 뿐만 아 니라, SA시간과 음악시간에 배운 다양한 악기 를 연주한 학생들의 공연도 이어졌다. 2학기에 는 경기외고 오케스트라 '돌체'가 급식실 맛나 루에서 아름다운 연주를 선보였다. 점심시간에 울려 퍼진 클래식 음악으로 인해 맛나루는 고급 레스토랑 분위기를 자아냈다.

2012년도 목요 음악회는 다양한 학생들의 음 악적 재능을 재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1년에 2번 있는 공연동아리의 공식적인 무대 중 첫 무대인 목요 음악회는 공연 동아리 신입 부원들의 데뷔 무대라고도 할 수 있다. 첫 무대 였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무대를 보여준 공연 동아리 9기 부원들과 작년에 비해 한층 더 성숙 하고 특별한 무대를 만들어준 8기 부원들, 그 리고 모든 무대를 함께 즐길 줄 아는 모든 가플 리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 박지은 기자







### 제 2회 교내 토론대회.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2012년 6월 14일 목요일, 자습에 매진해야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외고 다목적실은 발 디딜 틈 없이 학생들로 북적였다. 경기외국어 고등학교 제 2회 토론대회 결승이 열렸기 때 문이었다. 경기외고 국어과에서 주관한 이 행 사는 남는 자리가 없어 서서 보는 학생이 있을 정도로 뜨거운 열기 속에서 촬영과 동시에 진 행되었다.

홈플러스, 이마트 등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에 대한 찬반 토론으로, 사전 에 실시된 예선에는 수많은 팀들이 참가하였 고, 예선과 준결승을 통과한 두 팀이 결승에서 만났다.

토론은 사회를 맡은 국어과 김시경 선생님의 여는 말씀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결승에 진 출하게 된 슈뢰딩거의 고양이 팀과 정조왕 팀 이 차례로 입장하였다. 강지현 선생님, 최병수 선생님, 하연경 선생님, 권은선 선생님, 박윤희 선생님께서 심사를 하셨다.

찬성 측의 입장은, 기업형 슈퍼마켓(이하 SSM) 은 집객 효과를 발휘하여 동네 상권을 활발하 게 하며, 나아가 일자리 창출, 주변 부대시설 발 달 등의 시너지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었다. 또 한, SSM의 동네상권진입을 직접적으로 제한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며.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서비스협 정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대 측은 소비자들이 투자한 자본은 지 역발전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사로 이동되 어 사실상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 며, 오히려 지역 간 빈부격차가 발생한다고 반 박하였다. 덧붙여, 지역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 하여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고, PB상품(Private Brand goods)은 낮은 품질과 비합리적인 생산 과정으로 인해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한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이 날 토론은 토론자들의 말이 너무 빨라지거 나, 중간에 상대 팀 토론자의 말을 끊고 자신 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등 문제점들도 있었지 만, 창의적인 주장들과 날카로운 심문 등으로 참가자와 방청객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었다. 국어과 권은선 선생님은 "아쉬운 점도 있었지 만 한편의 야구 경기를 보는 것 같았다."는 소 감을 밝히셨다. 이와 더불어, 토론 시에는 자신 의 주장과 근거를 내세우는 것보다도 상대방의 논리를 예측하여 적절히 응수하는 것도 중요하 다고 당부하셨다.

▶ 우승현 기자

# 때로는 독, 때로는 약이 되는 스마트폰

점점 더 사용자가 늘어나는 스마트폰! 스마트 폰의 열풍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이제 더 이 상 폴더 폰이나 일반 터치 폰과 같은 기종은 더 이상 출시되지 않고 있다. 대신 더 발전된 스마 트폰이 출시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똑똑한 기 능과 편리함 때문에 많은 휴대폰 사용자들이 스 마트폰으로 바꾸고 있다. 성인들뿐만이 아니라 학생들까지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경기 외국어고등학교의 한 반을 예로 들자면, 반 인 원수 33명 중 단 4명을 제외한 학생들이 스마트 폰을 사용하고 있다.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이 미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스마트폰은 휴대폰계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 다. 메시지, 전화통화, 영상통화, 게임 및 오락 기능, 카메라, 메모 등의 기본적인 기능만 갖추 고 있던 휴대폰이 이제는 Wi-fi를 도입하면서 기본적인 기능과 더불어 음성인식 시스템과 컴 퓨터로만 할 수 있었던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으로 소통하기, 채팅, 음악 다운 로드, 인터넷 검색, 메일 확인을 할 수 있게 되 었다. 또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다운받아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학생들은 스 마트폰을 사용함으로써 공부하다가 궁금한 것 이 생기면 인터넷 검색으로 해결하고 생소한 단 어의 의미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신문 이 아닌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뉴스를 확인할 수 있어 정보들을 쉽게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는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 다. 몇 달 전 한 카페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음료를 시키고 서로의 휴대폰만 바라 보며 대화가 없는 모습을 보았다. SNS를 통해 인간관계가 더 나아질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집착하고 의존하여 막상 사람끼리 만났을 때는 삭막해지는 부작용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스마트폰에 중독되 어 눈이 침침하고 건조해지는 안구건조증, 오 랫동안 고개와 허리를 숙이고 있는 탓에 목과 허리가 뻣뻣해지고 아픈 거북목증후군, 휴대폰





을 오래 들고 있는 탓에 손목에 심한 통증을 느 끼는 손목터널증후군 등 스마트폰 증후군이 많 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학생들에 게도 많이 일어난다. 스마트폰 중독자들을 통 계 내어 봤을 때, 초·중·고등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자료 참고) 실제로 스마트폰 중독증상이 있는 학 생들은 학업에 열중하지 못해 공부를 제대로 하 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수업시간에도 선생님



2011년 만5~49세 PC 및 스마트기기 기반

몰래 스마트폰으로 채팅이나 게임을 하는 경우 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또한,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채팅을 하다 다음날 일과에 지장을 미치는 경우도 많다. 경기외고의 한 학생 장○○양은

스마트폰이 실제로 정상적인 삶에 방해가 된다 고 한다. 그 이유를 묻자, "카카오톡도 하고 페 이스북도 하는 등,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 게 되니 공부에 방해가 된다. 스마트폰을 사용 하다가 벌점도 3번이나 받아봤다." 라고 답했 다. 경기외고의 김은산 사감선생님께서도 "스 마트폰은 학생들에게 매우 방해가 된다고 생각 한다. 실제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걸리는 경우가 매우 많고 이런 현상을 방지하 기 위해 휴대폰(특히, 스마트폰)을 자습시간이 나 점호 후에 사용하다 걸릴 시에 벌점을 부과 하는 벌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나도 벌점 주 는 것은 매우 싫지만 벌점을 부과해야 학생들 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어서 실시할 수 밖에 없 다."라고 말했다.

스마트폰은 말 그대로 똑똑한 휴대폰이다, 하 지만 쓰는 사용자가 얼마나 잘 조절하며 사용



하느냐에 따라 스마트폰은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 가플리안은 스마트폰에 너 무 빠지지 않고 좋은 용도로만 사용하는 학생 이 되길 바란다.

▶ 최희재 기자

# 외부 교육 봉사 동아리,

경기외고에는 여러 봉사 동아리가 있다. 그 중 에서도 아주 열정적인 활동을 보여 많은 사람 들의 관심을 받는 동아리가 있는데 바로 스톡 이다

스톡은 경기외고 7기 때 처음 생긴 교육 봉사 동아리로 학생들은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중 하루를 선택하여 군포중학교 학생들을 가르친 다. 중학생들은 주로 영어를 배우고 원하면 다 른 과목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목요일 오후, 군포중학교로 이러한 뜻깊은 봉사를 하는 스톡 을 따라가 보았다.

스톡 봉사는 1:1의 멘토-멘티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하는 1:多의 방식 을 보충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가르침을 받는 다수의 학생들이 1:1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 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군포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윤홍신 학생은 스톡 봉사를 통해 학습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 윤홍신 학생은 평소에도 학교에 서 통기타를 배우는 등 방과 후 활동을 즐겨하 는데 처음에는 친구를 따라왔다가 스톡을 접하 게 되었다고 한다. "학교에서 그 날 배운 것을 멘토와 함께 그 날 복습하기 때문에 공부에 큰 도움이 된다." 며 "멘토는 주로 학교의 영어 교 과서 해석 등 학교 내신에 대해 가르쳐주기 때 문에 내신 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김미화 학생 또한 스톡 봉사를 통해 신기한 변 화를 경험했다. 평소에 영어에 자신감이 없었던 김미화 학생은 엄마와 선생님의 추천으로 스톡 봉사를 신청하게 되었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 "봉사를 통해서 모르는 영 어 어휘나 문법 등을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 게 되어 학교 수업에도 집중이 잘 되고 빠른 진 도도 부담스럽지 않다."는 김미화 학생은 "일 주일에 한 시간이라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 지만 그래도 일주일 동안 어려웠던 부분을 질 문하고 익힐 수 있어 유익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봉사 활동은 군포중학교 학생들 뿐 아 니라 스톡의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 쳤다.

8기 김유진 학생은 경기외고에 입학할 때부터 교육 봉사를 희망하였는데 스톡이 가장 정기적 인 교육 봉사 활동을 하는 것 같아 스톡에 지 원해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봉 사를 하기 전과 후에 다른 점이 있느냐는 질문 에 김유진 학생은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는 매주 중학교에 방문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귀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봉사를 한 뒤로부터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 게 되었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시간이 적게 만 느껴졌다." 라고 답했다.



8기 유천정 학생은 스톡 교육 봉사를 통해 자 신의 꿈을 미리 경험할 수 있어 매번 갈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미래에 영어 교사를 꿈 꾸는 유천정 학생은 "직접 가르치는 경험을 얻 으며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몸소 체험할 수 있 게 되어 내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게 되었 다. 매주 학생을 지도하러 중학교에 가지만 갈 때마다 새롭고 뜻 깊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 다."고 말했다.

반면에, 스톡이 앞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또한 존재했다. 대다수가 과도한 교통비를 작 은 불만으로 손꼽았다. 매 주마다 택시 혹은 버 스를 타고 가기 때문에 교통비가 과도하게 쓰 인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었다. 또, 어떤 학생 은 제한적인 봉사 시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는 시간은 가르침을 받 는 학생에게, 또 제공하는 스톡 부원들에게도 짧은 시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으로 스톡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위와 같은 문제점 들이 해결된다면 더 활성화된 교육 봉사가 이 루어 질 것이다.

# 슈퍼 히어로 영화 대 격돌, 승자는?





최근 영화계가 떠들썩하다. 다름이 아니라 우 리의 영원한 영웅 '배트맨'과 '스파이더맨'이 더 블 콤보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크리스토퍼 놀 란 감독의 '다크 나이트 라이즈'와. 마크 웹 감 독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각각 그들의 복 귀작이다. 명실상부한 세계 3대 히어로 (물론 슈퍼맨을 포함한다면) 중 당당히 두 자리를 차 지하고 있는 영웅들의 부활인 만큼 어느 때보 다도 지대한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가 운데 자연히 두 영화 중 어느 작품이 더 큰 인기 몰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들기 마련 이다. 그런 이들을 위해 준비했다. 배트맨과 스 파이더맨, 그들의 인기 비결은 무엇이며, 비슷 한 장르의 픽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인기도에 서의 차이를 보인다면 두 영화가 가지는 근본적 인 차이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우선, 배트맨 시리즈부터 파헤쳐 보자, 배트맨 시리즈는 DC 코믹스의 만화에 착안한 작품으 로, 팀 버튼 감독의 손에서 배트맨 1 (1989)을 시작으로 4편까지 제작되었다. 이후 배트맨이 라는 캐릭터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 의해 재탄생되어. 새로운 스토리라인과 함께 '배트 맨 비긴즈'에 등장한다. 실제로 많이 알려진 배 트맨의 모습은 이때 만들어진 것으로, 새로운 배트맨 시리즈는 전편들과는 달리 암울하고 부 패한 사회 현실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배트맨의 등장에 필연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항상 고뇌 하는 영웅의 인간적인 모습을 부각하기 시작한 다. 최근 개봉한 '다크 나이트 라이즈'는 전편인 '다크 나이트'의 속편으로, 600만 관객을 끌어 모으는 기염을 토했다. '다크 나이트'에 등장했 던 '조커'라는 존재감이 있고 악랄한 악당의 뒤 를 이을 만한 새로운 악당이 누가 될 지가 최근 대중의 관심사였다고 할 수 있는데, 크리스토 퍼 놀란 감독은 역대 최고의 공격력과 힘의 소 유자이지만 슬픈 사연을 가진 악당 '베인'을 등 장시킴으로써 팬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했다 는 평을 받고 있다.

다음으로,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1962년 샘 레 이미 감독에 의해 제작되었고, 다소 징그럽고 무섭게 여겨지던 거미의 모습에서 우리 사회 를 구할 새로운 슈퍼 히어로를 착안해 낸 아이 디어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 어떤 슈퍼 히어 로보다 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스파이더맨 은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스 파이더맨을 상징하는 강렬한 색의 쫄쫄이 의상 을 통해 그 이미지를 관객에게 확실히 각인시 켰다. 또한, 배트맨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최근 개봉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은 스파이더맨 역 을 맡은 주연 배우가 바뀌어 화제를 모았다. 오 리지널 스파이더맨의 장난스럽고 조금은 익살 스러운 모습을 잘 표현하였다고 호평을 받았던 토비 맥과이어의 자리를 신인인 앤드류 가필드 가 채우게 되어, 과연 앤드류가 스파이더맨 역 할을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을지가 이번 영화 개봉 성공의 결정 요소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스파이더맨의 귀환에 수많은 영화 팬들 - '스 파이더맨 시리즈'의 고정 팬들 - 이 모여들었 지만, 그 공백기를 채울 만큼 큰 성공 수익을 올 리지는 못했다. 그 책임을 새로운 남자 주인공 에게 물어야 할지, 마찬가지로 새로운 감독인 마크 웹에게 물어야 할지는 미지수다.

이제 본격적으로 두 영화를 비교해 보자. 우선 가장 큰 공통점은 배트맨과 스파이더맨 모두 사 람들이 기피하는 작은 생물에서 착안한 캐릭터 라는 것이다. 배트맨은 박쥐를, 스파이더맨은 거미를 형상화하였다. 배트맨이 검은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모습은 박쥐를, 스파이더맨이 자유자재로 손에서 거미줄을 뽑아내 벽에 붙 어 다니는 모습은 거미를 연상하게 한다. 주인 공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하필이면 이러한 작고 사소한 - 그리고 징그러운 - 동물들로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작은 생명체가 영웅이 되어 사람들을 구하고 범 죄를 막으며 도시의 보호자로서 활약하는 것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이거나, 혹은 생명력 이 강하며 상처 회복이 빠르고 자유자재로 움 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원작자들 에 의해 채택된 동물들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또한, 당연한 이야기지만 배트맨과 스파이더맨 모두 엄청난 초능력을 가졌다. 배트맨은 박쥐 처럼 생긴 검은 수트를 입으면 엄청난 힘이 솟 아나고 (심지어 목소리까지 변한다). 스파이더 맨 또한 가슴에 거미가 그려진 쫄쫄이 의상을 입으면 마치 거미처럼 손발에서 거미줄 같은 끈 끈이를 발사할 수 있다. 놀라운 것은, 두 캐릭 터 모두 자신이 입는 '영웅 복장'을 스스로 디자 인하고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슈퍼 히어로의 이름으로 손꼽히려면 혼자 그 정도 노력은 해 야 하는가 보다!

하지만 마냥 비슷해 보이는 이 두 영화 사이 에도 분명한 차이점들이 존재한다. 먼저, 배트 맨 시리즈

(편의상 잘 알려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 크 나이트'부터)는 매우 암울하고 어두운 분위 기를 조성한다. 그 영화 속 상황에 있으면 누구 라도 겁에 질릴 만한 상황을 연출하고. 절대적 사회악을 상징하는 현실적인 악당들을 등장시 킴으로써 히어로 영화라기보다는 마치 스케일 이 큰 스릴러 영화를 보는 듯한 이미지를 자아 낸다. 그에 비해,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마치 벽 을 기어오르는 거미 같은 우스꽝스러운 주인공 의 자세와 같이 영화 내내 유쾌한 분위기를 유 지한다. 진지하고 심각한 듯 하지만 어딘가 장 난스럽다. 등장하는 악당 또한 비현실적이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의 악당은 초록색의 거 대한 '리자드맨'인데. 이 악당은 말 그대로 몸집 이 크고 무지막지하게 힘이 센 도마뱀 괴물이 다. 다음으로, 배트맨이 항상 검은색 망토에 검 은색 가면을 쓰는 것에 반해 스파이더맨은 빨 강색과 파란색이 조화된 밝은 쫄쫄이 의상을 입는 것을 작은 차이점으로 꼽을 수 있다. 결국 이는 배트맨 영화를 보는 사람들과 스파이더맨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연령층과 관심사, 그리 고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트맨 시 리즈가 비교적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 굳이 꼽 자면 그 중에서도 성인 남성에게 인기가 많은 경향을 보인다면,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대체로 어린 아이들에게 인기몰이를 하는 편이다. 또 한, 배트맨 시리즈를 보는 이유가 배트맨이 어 떻게 '똑똑한' 악당과 싸워 사회를 악에서 구출 해 내는지를 보기 위해서라면 스파이더맨 시리 즈를 볼 때에는 스파이더맨이 덩치 크고 힘 센 괴물을 스릴 있게 물리치고 여주인공을 구해내 는 마지막 장면을 보는 데에 중점을 두게 된다 고할수있다.

그리고 배트맨과 스파이더맨의 탄생 일화 또한 꽤나 큰 차이를 보인다. 배트맨이 부유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나 사회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스스로 거대한 박쥐가 되기를 택했다면, 스파 이더맨은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지만 의도치 않 게 거미에게 물려 자신의 몸이 점점 거미처럼 변해 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그는 자신

의 손가락에서 거미줄이 튀어나오는 것을 이용 하여 영웅이 된 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 주는 정의의 사도가 되기로 결정한다. 이것에 서 배트맨이 항상 심각하고 우울한 것과, 스파 이더맨이 항상 즐겁고 유쾌한 것의 이유를 찾 아 볼 수 있다. 끝으로, 배트맨 시리즈에서는 강 한 배트맨 가면에 가려진 주인공이 자신의 존재 로 인해 혹 사회에 피해가 되지 않을까 고민하 면서도 배트맨이 사라진다면 만연하는 사회악 은 누가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뇌하 곤 한다. 하지만 스파이더맨은 그보다는 자신 의 인생에 더 관심이 많다. 물론 주된 임무는 사 람들을 위험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이지만, 영화 를 보면서 은근히 드는 생각은 '만약 스파이더 맨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자 주인공을 구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야 한다면, 그 는 기꺼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다. 물론 스

파이더맨 시리즈를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 혀 아니다. 그저 스파이더맨 영화가 배경으로 하는 도시가 배트맨이 사는 곳보다는 조금 더 밝고 평화롭게 묘사된 덕분에 영화의 분위기 자 체가 훨씬 가볍게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한다.

결론적으로, 배트맨 시리즈와 스파이더맨 시리 즈는 유사한 듯하지만 서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똑같이 '슈퍼 히어로'라는 주제를 바탕으 로 하지만 다른 지향점을 가지는 만큼, 서로 경 쟁하지 않고 각자의 분야에서 활약하는 배트맨 과 스파이더맨을 보고 싶다. 우리가 어른이 되 어서도 스크린에서 이 위대한 영웅들을 보면서 변함없이 그들에게 열광할 수 있었으면 한다.

▶ 최규원 기자

### 독점을 이용한 배 채우기? 매점을 파헤치자!

매점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만만치 않다. 가 격이 비쌀 뿐더러 품목도 다양하지 않다는 것 이 주된 불만사항이다. 외출이 쉽지 않은 기숙 사 학교이다 보니 학생들이 급식 이외의 것을 먹기 위해 이용할 곳은 학교 내부의 매점 밖에 없는데, 매점은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 여 폭리를 취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는 이러한 불만사항들을 모두 접수하여 정리해보았다.

불만 사항 중 제일 많이 접수된 내용은 우선 매 점 아주머니들의 태도이다. 언행과 표정 등이 상냥하다고 느껴진 적은 없었다는 의견이 대부 분이었다. 실제로 학생들 10명 중 9명은 '태도 가 불친절하다'라고 답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거스름돈을 제대로 못 받거나. 물건 을 훔치는 줄 알고 오해를 사거나, 계산미숙으 로 인한 피해 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다. 가격이 비싼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불친절하 기까지 하다. 경기외고의 학생들은 매점에 들 릴 때마다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명목'뿐인 친환경 매점이라는 것 이다. 현재 타학교에서도 친환경 매점을 운영 하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친환경 매점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본래 친환경 매점의 목 적은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친환경 과 일 등을 판매해 매점을 이용하는 학생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경기외고의 친환경매점은 명색만 번드르르 할 뿐이다. 친환경 매점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게

된 것은 작년부터였다. 처음에는 '마켓오'와 같 은 상품들과 신선한 과일을 판매하는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는 듯 했다. 그러나 요즘 은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대표 명사인 컵라면 과 과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곳이 친환경 매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은 몇 개의 값 비싼 시든 과일뿐, 그마저도 요즘은 판 매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불만사항은 가격이다. 설문 조사를 시 행한 결과, 98.8%의 학생들이 매점 가격에 대 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모든 품목의 가격이 교외 상점들보다 적잖게 비싸지만, 특히 아이 스크림에 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원성을 터 뜨리고 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동네에서는 70% 세일해서 매일 300원에 먹었는데, 여기 서는 기본이 1000원이니 어이가 없다."는 것 이다. 그렇다면 분명히 포장지에는 정가 1000 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슈퍼마켓들은 왜 적자 를 내며 장사하는 것일까? 그들이라고 해서 남 지 않는 장사를 할 리가 없지 않은가? 정가 1000원의 아이스크림을 전국의 슈퍼에서 연중 세일하며 300원에 팔 수 있었던 이유를 파헤쳐 보았다. 여러 사이트에 따르면, 슈퍼에서 일정 제조사의 품목 판매율을 100%를 달성하면 장 려금이 나온다고 한다. 이 장려금으로 적자를 메운다는 것이다. 이제 경기외고 매점으로 돌 아가 보자. 경기외고 매점은 특성상 경쟁사가 없다. 즉, 독점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파 는 곳이 하나뿐이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학 생들은 어쩔 수 없이 매점을 이용하게 되고, 그

결과 부르는 대로 값이 되는 것이다. 또한, 매 일 전교생 및 임직원 등 900여명으로부터 보장 된 수익이 나온다. 그러므로 아이스크림을 정 가에 팔고. 100% 판매를 달성하여 장려금도 받는 것이다. 실제로 얼마를 버는지는 몰라도 엄청난 액수의 이익을 내는 것만은 확실하다. 고정된 소비자로부터 나오는 고정수입, 정가 이상의 가격, 연중 전무한 이벤트나 할인행사, 한정된 판매품목, '친화경'이라는 이름의 무색 함... 경기외고 매점은 학생들을 상대로 인정 없는 장사를 하며 실리는 실리대로 챙기는 '나 쁜 매점'에 불과한 것이다.

학생들이 매점에게 하고 싶은 말은 분명하다. "인심이 느껴지는 매점을 만들어주세요." 경기외고의 매점 또한 나름대로 할 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제는 소비자인 학생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서로 가 서로에게 유일한 소비원, 판매원 인만큼 이 제는 배려와 양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어쩔 수 없이 지정된 곳에서 밖에 소비를 할 수 없는 학 생들의 마음도 헤아려 줄 수 있는 매점이 되 길 바란다. 경기외고 매점의 빠른 변화를 촉 구하다

▶ 권나연, 김다영, 최진규 기자



## GAFL TOP3.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2012년 6월 12일.

경기외고 8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우리는 ○○선배의 일상이 궁금하다!"의 결과. 전 학생회장 임태균 선배, 스틸로 임태현 선배, 전 디타후 부장 안상윤 선배가 7기 TOP3로 뽑 히셔서 뜨락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 뜨락: top3에 뽑히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임태현 선배 : 상윤이가 아니라 태균이가 일등 인 것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군(웃음), 관심을 가져줘서 고마워.

안상윤 선배 : 관심 가져줘서 고마운데 태균이 는 전교회장이어서 뽑힌 것 같고, 태현이는 간 판남이라 뽑힌 것 같은데 나는 왜....지?

#### 뜨락: 선배님도 인기 많으세요!

안상윤 선배 : 아 그래? 기분 되게 좋다!

#### 뜨락: 이건 조~금 난감하시겠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나만의 매력 포인트란?

임태균 선배 : 후배들한테 옆집 오빠같이 푸근 하고 편안하게 다가가서 애들이 다정하게 봐 주는 것!

임태현 선배 : 흐음…….

안상윤 선배: 임태현, 모르는 척 하지마라.

임태현 선배 : 음 겉으로 보기엔 나빠 보이지만

속으로는 한없이 따뜻한..(웃음)

안상윤 선배 : 내 매력 포인트는 덧니지 덧니~ 4개야. 봐! 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뜨락 : 고3이라 공부하시는데 부담감이 엄청 날 텐데, 그 쌓인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세요?

임태균 선배 : 맞아,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니까 계속 시험기 간인 것 같고 긴장이 많이 돼. 난 운동으로 푸 는 편이야. 친구들하고 수다도 떨고.

임태현 선배: 1,2학년 때는 공부 말고도 신경 쓸 게 많았는데 난 부담이 줄어서 오히려 좀 편안해. 안상윤 선배 : 나는 가끔 운동하러 나가거나 과 격한 음악을 들어.

#### 뜨락 : 오 그렇군요, 요즘 일상을 "나는 지금 □□한다."로 정의한다면??

임태균 선배: 나는 지금 인터넷 수능하고 있다. 아. 썰렁한가? 우리 삶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안상윤 선배 : 나는 지금 디타후 2집을 기다리

임태현 선배: 나는 공부 축구 공부 잠이다.

#### 뜨락: 아참, 고3 남자 선배님들이 요즘 머리스 타일을 짧게 바꾸고 오시던데, 갑자기 심경의 변화라도 있으신 건가요?

안상윤 선배: 나는 중학교 때부터 공부해야지 하 면 머리를 밀어왔어. 여름에 주로 밀었는데 특별 히 심경의 변화라기보다는 그냥 시원해서 밀어. 임태균 선배: 중간고사 끝나고 머리가 너무 지저 분해서 집에 가자마자 "깨끗하게 밀어 주세요." 하고 밀었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밀었지. 임태현 선배: 나는 덥기도 하고 머리에 신경 쓰 고 싶지도 않아서 잘랐는데, 밀고 나니 더 신경 이 쓰였지. 모두가 날 보고 웃는 것 같아서.. 대 인 기피증 생기는 줄 알았어. 그리고 가장 마 음 아팠던 건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줄 알았 던 엄마마저 기겁을 하셔가지고는…….(웃음)

#### 뜨락 : 축제 끝나고 연예인 같은 존재가 되셨 는데, 어떠셨어요? 인기 실감하고 계신가요?

안상윤 선배 : 그냥 정말 좋았어. 진짜 되게 좋 았어.

임태현 선배: 다른 애들은 뭐 받고 이랬는데 나 는 없어가지고 아주 조금....서운했...다..

#### 뜨락 : 아~ 그렇군요. 아참. 이제 졸업사진 도 다 찍으셨고 곧 졸업하시는데 기분이 어떠 세요?

안상윤 선배 : 놀라워.

임태현 선배: 수능 끝나면 실컷 놀아야지, 하는 데 집에 가면 누가 뭐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래 서 되게 허전할거 같고, 어쩌면 지금이 더 재미 있을 것 같아.

안상윤 선배 : 맞아. 지역이 나눠져 있어서 다

같이 놀지도 못할걸? 또 뭘 해야 할지도 모를 것 같아.

#### 뜨락 :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하고 싶은말 해 주세요~!

임태균 선배: 스펙 때문에 전교회장 했다는 말 이 너무 속상해. 절대로 스펙을 쌓는 걸 목적으 로 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되 게 오해들 많이 하는데, 들을 때마다 속상했어. 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사람이 가장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해. 내가 하고 싶던 게 바 로 전교회장이었고 일할 때마다 내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웠어. 소박한 내 꿈이 있다면 졸업식 날 연설할 때 3년을 돌아보면서 연설하고, 펑펑 울고 싶다는 것! 끝나는 순간, 뿌듯했다. 후회 없다, 진짜 잘 보냈다, 하면서 진짜, 펑펑 울고 싶어. 정말 난 3년을 잘 마무리 하고 싶어. 음, 그리고 너희들은 원동력과 목표를 가지고 고3 을 시작하면 좋겠어. 그러면 좀 더 힘들지 않게 버틸 수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내 뒤를 잇는 학생회장. 그리고 학생회들 수고하고. Gaflian 모두들 고등학교 시절 진짜 알차게 보내길!

임태현 선배: 태균이가 내가 할 말을 다했네(웃 음) 음. 2학년 때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고 꼭 거기에 맞는 마음가짐과 목표를 잡고서 시 작했으면 좋겠어.

안상윤 선배 : 난 꼭 대학을 갈 거야. 후회 없이 3학년 잘 마무리하고 싶고, 가슴 벅찰 정도의 성과를 얻어서 내가 아는 동생들에게 멋있는 본 보기로 남고 싶어. 아, 저 형, 오빠 되게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도록.

모두들 자신의 지난 3년을 스스로 되돌아봐서 일까요.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을 끝으로 인터 뷰를 마친 뒤, 그 곳의 분위기는 여운이 남은 듯, 잠시 동안 고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균. 태현. 상윤 선배께서 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 습니다. "우리 뒤를 이을 후배들은 정말 희망을 갖고 기쁘게, 긍정적으로 생활했으면 좋겠어." 바쁘신 와중에도 무려 한 시간 동안이나 친절 하고 다정하게 인터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 다. 꼭 좋은 결과 나셔서 다 같이 기뻤으면 좋 겠습니다! 파이팅!

▶ 서희준, 홍해승 기자

# '안내양 안내군의 우리 문화 알리기' 제작 인터뷰

2012년 3월, 경기외고 7기 학생들이 모여서 '안내양 안내군의 우리 문화 알리기' 라는 책을 쓰고 조선일보에 인터뷰가 실려 큰 화제가 되었 습니다. 이들은 1학년 때부터 '우리 문화 알리 기 동아리'를 통해 처음 조사를 시작하였고, 2 년간의 조사를 거쳐 잘못된 인용과 번역이 수록 된 안내문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뜨 락은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경기 외고의 명예를 빛낸 주역들과의 만남을 통해 책 제작 과정과 소감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 기로 하였습니다.

#### Q. 조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여명 : 1학년 때, 학교에서 실시한 '프라이드 코 리아(Pride Korea)'에 참여하여 덕수궁으로 답 사를 갔습니다. 그 곳에서 외국인을 위한 영어 안내문에 오류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 러한 오류를 바로 잡고 우리 문화를 널리 홍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작업을 시작하 게 되었습니다.

#### Q. 같이 팀을 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여원 : 저희가 모두 안산, 시흥, 광명 등 가까 운 지역에 살기 때문에 함께 팀을 이루게 되었 습니다.

#### Q. 그럼 2년 간의 작업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태현 : 경복궁, 경희궁, 덕수궁, 창경궁, 창덕 궁, 그리고 청계천을 각자 답사하며 사진도 찍 고 안내판의 잘못된 인용이나 번역도 확인하였 습니다. 주말에는 이렇게 직접 답사를 통해 자 료를 수집하였고 평소에는 틈틈이 자신이 다녀 온 곳에 대한 설명을 영어로 번역하고 확인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습니다.

#### Q.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 까?

여명 : 언뜻 봤을 때는 비슷한 뜻 같지만 영어 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는 단어나 문법사항 등을 번역하 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영어 교수님이 신 어머니의 도움과 아는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 아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Q. 그러면 반대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언제 입니까?

여원: 책이 출간된 후, 제가 직접 찍은 사진과 제가 직접 쓴 글이 실려 있는 것을 보며 보람찼 습니다. 책 표지에 제 이름이 나와 있는 것도 놀



랍고 뿌듯했습니다.

#### Q. 책이 팔리면 인세는 어떻게 분배하나요?

수영: 부모님들께서 투자하여 책을 출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n분의 1을 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는 이익부분은 문화재 청에 이임하고 있습니다.

#### Q. 신문에 나온 후 주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태현: 학교 친구들은 신기해했고, 오랫동안 연 락이 안 되던 친구한테서도 신문을 봤다며 연락 이 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수영: 많은 분들이 저희의 도전정신에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 Q. 이 활동을 하면서 에피소드가 있다면?

태현 : 어머니와 함께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 를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세종대왕 역할을 맡은 배우가 향원청을 바라보며 서 있는 장면 이 있습니다. 향원청은 고종 때 만들어졌기 때 문에 세종대왕이 향원청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러한 점을 발견하고는 제 자신 이 매우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 작업 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얻는 것도 많고 보람차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 Q. 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 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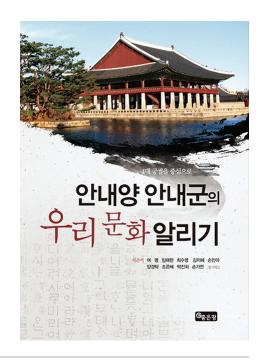
수영: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우리가 보전하 고 복원하여 후세에 선조의 정신을 잘 물려줘야 합니다. 역사를 바로 알고 배우는 것이 우리 학 생들의 본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원 : 우리 문화와 역사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오류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 Q.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온다면?

여명: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주저하지 않고 다시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였 습니다.

▶ 정하나 기자





### 가플 콘서트













2012년 12월 26일 저녁 7시, 가플 콘서트의 막이 올랐다. 이번 가플 콘서트는 졸업생, 교사, 그리고 경기외고의 발전을 위해 힘써 온 사람들이 모두 함께하는 자리였다. 1부는 9기 학생들이 SA시간에 익힌 아름다운 핸드벨 연주로 시작하여, 음악시간에 준비한 조별 합주, 그리고 오케스트라 동아리 돌체까지 학생들의 숨겨진 끼를 엿볼 수 있었다. 그 중 7기 김형준, 오영주 학생과 함께한 박하식 교장선생님의 노래가 인상 깊었다. 2부는 귀여운 대교 어린이 TV 합창단의 공연으로 시작하였다. 1기 졸업생 장동인의 앙상블부터 SA교사들의 공연까지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졌다. 선생님들의 중창과 학부모님들의 합창공연은 학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마지막은 모든 참석자들이 일어나 경기외고 교가를 제창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가플 콘서트는 경기외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더욱 뜻 깊은 자리였다. 성공적으로 개최된 제 1회 가플 콘서트를 시작으로 하여, 앞으로 매년 연말 콘서트가 경기외고 가족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안겨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 서울대 법대 이대관 선배 인터뷰





경기외고에서의 2013년이 시작되고 모두들 새 로운 환경에 적응해나가고 있을 무렵,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경기외고 2기 졸업생이자 현 서울대 법대 4학년인 이대관 선배가 경기외고 의 9, 10기 후배들을 만나러 오셨다. 경기외고 법학 동아리 E&N에서 주최한 이 만남의 자리 에 미래의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모두 모 였다. 이대관 선배가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 시는 동안 모두들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들으

며 필요한 내용을 메모하는 등 학생들의 꿈을 향한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뜨락 인터뷰부에 서 강의 시작 전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잠시 인터뷰할 기회를 가졌다.

Q. 안녕하세요. 교내대표신문 뜨락 인터뷰부 전세현, 김나영입니다. 저희가 선배님을 단독 으로 인터뷰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에요.^^ 2기 선배님을 뵙게 되니 마치 살아있는 역사를 보는 듯 한 기분이네요. 지금 서울대 법대 4학 년에 재학 중이신데, 법조인으로 진로를 결정 하시게 된 구체적인 계기가 있으신가요?

A. 네, 저도 이렇게 단독샷을 받게 돼서 정말 영광이네요.^^ 제가 법조인으로 진로를 결정하 게 된 특별히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계기가 있 었던 건 아니에요.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 고, 사람은 결국 사회적 영역, 신체적 영역, 정



신적 영역으로 구분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 매치되는 것들을 생각 해봤는데 법학, 의학, 신학이더라구요. 그런데 의학의 경우에는 제가 피를 볼 자신이 없었고, 신학의 경우에는 평생을 기도하고 신실하게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웃음) 그래서 남은 것인 법 학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죠. 또 다른 계 기는 제 이름 '대관'이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건데, 대법관에서 '법' 자를 뺀 거에요. 물론 나 중에 아버지께서 이름이 너무 세속적이라고 ' 관' 자를 '너그러울 관'으로 바꾸시긴 했지만(웃 음) 그만큼 할아버지께서 법조계에 가기를 원 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는 것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 Q. 대한민국 모든 고등학생들의 꿈의 대학인 서울대 법대에 재학 중이신데, 서울대 법대를 가기 위해 고등학생 때 하셨던 노력이라든지 특별한 공부법이 있으셨으면 후배들에게도 소 개해주세요

A. 음, 빈말이 아니라, 정말 딱히 특별한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노하우 라든지. 전략을 말해보자면... 먼저 언어영역 의 경우에는 사설 문제는 전혀 풀지 않았고 역 대 수능 기출과 EBS 교재만을 봤어요. 사설 문 제의 경우 정답을 맞히려고 애쓰다 보면 자칫 문제에 대한 촉이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그 리고 언어 영역도 주요 지문들은 외워둬야 빠 른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조기학습이 중요했던 것 같습 니다. 그렇다고 너무 앞서가진 않았고, 정규 교 과과정보다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미리 공부 해두면 확실히 개념 이해라든지, 문제해결능력 이 상승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소위 '언수외'는 고3이 되기 전까지 어 느 정도 안정된 상태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은 사탐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어요.

하하, 너무 하나마나 한 이야긴가요?

#### Q. 아니에요. 저희들이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 정말 유익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들도 대학교에 들어간 후의 생활을 정말 기대 하고 있는데 선배님께서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 기 전에 꿈꿨던 학교 생활과 직접 입학해 생활 해본 것이 얼마나 다른가요?

A. 음, 특별하게 꿈꿨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미팅도 하고. 여자친구 도 생기고, 친구들이랑 밤새서 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꿈꿨죠. 공부 생각은 진심으로 아 예 안했던 것 같아요(웃음) 대학 생활 초기에 는 진로에 대한 고민보다는 모든 것들이 끝나 서 그냥 마음껏 놀 수 있다는 생각에 마냥 신 나기만 했죠.

그리고 1, 2학년 때랑 제대 이후가 조금 다른 데, 1,2학년 때는 앞서 말한 거랑 비슷해요. 정

말 미친 듯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놀았지만 그만큼 후유증도 컸죠. 제대 이후에 정말 제대 로 된 대학 생활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과 특성상 후배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쓸쓸했습니 다. 과마다 분위기는 다 다르고, 그 안에서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겠지만, 대체로는 '시간 이 갈수록 외로워진다'가 맞는 거 같아요. 2~3 학년 올라가면서 자기 앞가림하기 바빠서 낭만 은 사라지고, 현실적인 문제들과 싸우고, 그러 면서 주위 사람들과의 마음 편한 수다는 찾아 보기 힘들어지네요.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는 이 시기가 앞당겨지는 거 같아 마음이 안 좋습 니다. 그래도 잘만 찾아보면 행복하게, 보람차 게 대학 생활을 보낼 방법은 동아리 활동, 각종 멘토-멘티 시스템 등 무궁무진하게 많으니 너 무 좌절하지는 말구요.

정리하자면, 순진하게도 모든 입시 지옥이 끝 나서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알고보니 단지 새 로운 발판에서의 또다른 새 출발이었던 거죠.

#### Q. 고등학교 때와 다른 대학교 생활의 낭만은 무엇인가요?

A. 역시 자유로움이겠죠. 매일매일 학교에서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공부하고 저녁에 자습하 다가 대학에 와서는 원하는 수업을 듣고, 원하 는 때에 공부할 수 있다는 건 정말이지 큰 차 이입니다. 물론 자유로운 만큼 결과에 대한 책 임도 온전히 자신이 져야겠지만 어쨌든 자유롭 게 시간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에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대학교 가면 남녀 가 릴 것 없이 대체로 외모 수준이 상승합니다.(웃 음) 그래서인지 처음 대학교 가시면 1달 안에 동기 간, 또는 후배와 선배 사이에 수많은 커 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것이 낭만이 아니 면 뭘까요. 하지만 얼마 안 가 80프로가 깨진 다는 건 함.정.

이런 낭만 속에서도 조금 암울한 점을 얘기하 자면...앞에서도 했던 말이지만. 요즘엔 취업 문제 때문인지 정말 온전하게 자신이 하고 싶 은 것만 할 수 있는 시기가 점차 줄어드는 거 같 아요. 저희 때만 해도 2학년 2학기부터 시작이 었는데 요즘에는 1학년 겨울방학부터 준비하 는 거 같기도 하고...그래도 고등학교 때보다 는 훨씬 낭만이 넘치고 자유롭겠죠?

#### Q. 그래도 입시에 직면해 있는 저희로서는 취 업 문제에 맞닥뜨리게 돼도 원하는 대학 입학 하는 기쁨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렇다면 법대 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책 있으신 가요?

A. 먼저 '디케의 눈'을 추천합니다. 여기저기서 추천하고 있어서 사실 다 아실지도 모르지만 그만큼 재밌어요. 법에 대한 친밀함을 크게 늘 려주고 아울러 법적 개념도 조금은 습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양창수 대법관이 쓰신 '민법입문'

을 꼽고 싶네요. 법 중의 기본은 여전히 민법 이라 할 수 있겠죠. 민법의 대가이신 양창수 대법관이 쓰신 책인데, 학자로서 자신의 학설 을 주장하신 것이기 때문에 책의 내용이 진리 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법적 사고, 소위 legal thinking을 하는 밑거름을 쌓을 수 있다고 생 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법과 정치' 책이요. 교과서라고 무시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법과 사회'(저희 때 의 명칭은 이거였어요) 공부가 정말 큰 도움 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헌법의 풍경'을 꼽고 싶습니다. 음, 사실 좀 고민이 되네요. 이 책은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도 후배님들은 워 낙 똑똑하셔서 잘 읽으실 거라고 믿어요. 책의 내용이 다소 이상적인 내용이라는 느낌도 들지 만,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오히려 이런 생각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 Q. 마지막으로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 는 경기외고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A. 꿈을 전공과 동일시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학부 전공이 향후 진로에 갖는 영향력은 크지 않습니다. 의대 정도가 아니라면 말이죠. 대학 에 와서 공부를 하다보면 해당 전공이 아니더 라도 자신이 좇는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다 양하다는 걸 금세 깨닫게 될 거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일찍부터 꿈을 확정지 을 필요도 없다는 거! 특정 직종에 대한 환상, 또는 얼른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달려 나가야 한다는 초조함 때문에 너무 일찍 한 길만 바라 보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달리다가 도 무지 이 길이 아닌 거 같아 포기하는 친구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굉 장히 심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얻는 것이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를 신중하게 계속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대학교 1~2학년 때가 이것저것 해보면서 생각 을 정리하기에 최적의 시기인 것 같으니 그 시 기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 전세현, 김나영 기자



### 모교방문의 날

2013년 4월 26일은 경기외고가 지정한 모교방 문의 날이었다. 25일, 10기 학생들은 모교 방 문에 앞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고, 학 교 측에서 준비한 브로셔 등의 홍보물을 배부 받았다. 10기들은 모교와 사전 연락 후, 각자 지정된 시간에 학교를 찾았다.

10기들의 홍보에 참가한 경기외고 지망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 중 하나는 바로 경기외고 입학전형이었다. 벌써부터 경기외고 진학을 꿈꾸고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았기 때문에 자기계발계획서를 작성하는 요령, 중학교 영어내신관리에 관련된 조언, 도움이 될 만한 활동들에 관한 질문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외에도 입학 후 학업과 기숙사 생활, 다양한 활동들,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와 다른 점에 대 해서도 호기심을 가졌다.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내신을 따기가 어렵지 않은가 라는 질문부터 시작하여 제2외국어를 미리 공부해놓아야 하는지, 활동이 많은 만큼 공부에 집중하기힘들지는 않은지 등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다. 이에 10기 학생들은 두 달간의 학교 생활을 바탕으로 외고에 대해 두려움을 가진 중학생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고 외고 입학에 도전할수 있도록 용기를 심어주었다.

홍보를 모두 듣고 난 후, 외고에 관심이 없었던 학생들도 새로운 목표를 세워보려고 하는 모습 도 볼 수 있었다. 그 모습을 본 10기들도 만족 감을 느끼고 가플리안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 게 되었다고 한다.

학교 홍보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

기까지 함께 해주신 중학교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우리들 또한 선생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되어 좋은 결과를 얻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모교방문은 내년에 곧 보게 될 11기들에게도, 갓 입학한 10기들에게도 모두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글로벌 인재를 꿈꾸는 많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경기외고를 찾기를 기대해본다.

▶ 최성은 기자

# 축복과 용기를 전하는 **세족식**







세족식은 매년 기독교 성서력 에 따른 고난주간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모든 선생님들이 한 주 동안 학생들의 발을 닦아 주는 행사이다. 이 행사를 통해 선생님들은 축복과 용기를 전 하는 섬김을 실천하고 학생들

은 선생님의 진심어린 마음과 사랑을 확인하 여 신뢰와 깊은 정을 나누게 된다. 경기외고 가 추구하는 '세계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창조 적 리더십'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이루어지는 행사인 것이다. 뜨락에서는 가플리안이라면 모 두 거치게 되는, 그리고 경기외고의 상징이라 고도 할 수 있는 경기외고만의 세족식에 대하 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실제로 '세족 식'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또한 기독교적인 행사이고 선생님이 발을 닦아주시 는 행사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 학생들 이 많다. 하지만 이 행사가 끝난 후에는 대부 분의 학생들이 크게 만족하고 다시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물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학생도 존재하는, 경기외고의 자랑이라고도 할 수 있 는 행사이다.

세족식 후의 학생들의 느낌을 물어보았다. "앞으로의 학교 생활을 다짐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선생님께서 당시 학교적응에 힘들었던 나를 격려해주셔서 참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



"기독교인이 아니어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다. 하지만 세족식을 하고 나서 종교적인 것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타인을 위한 시간이라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되었다."

또한 웃기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들도 쏟아져 나왔다.

"발냄새 걱정 때문에 세족식 일주일 전부터 발을 정성껏 관리해왔다."

"이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 경기외고에 대해 알 아보았을 때 세족식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입학이 순간 망설여진 적도 있었다."

세족식을 하기 전 조금 꺼려했던 학생들도 세족 식에서 선생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진심어린 마음을 알아주었기 때문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세족식이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지속될 수 있 었던 것 아니었을까. 경기외고만의 특별한 세 족식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유승아 기자



# 행사의 꽃, 축제의 볼거리 다양한 반카페





2012년 11월 29 일. 이제 겨울이 다 되었다는 것음 앜

리듯 매서

운 추위가 찾아왔다. 하지만, 경기외고만큼은 그 추위를 느끼지 못한 듯 모두들 이른 아침부 터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기외고 행사 의 꽃이라고 불리는 축제가 "Gafliesta: Our Last Fantasy"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기 때 문이다. 평소 기숙사 폐쇄 시간에 딱 맞춰 준비 하던 학생들도 이 날만큼은 일찍 일어나 단장 했고, 조회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야 볼 수 있었 던 반 아이들도 이른 아침부터 다 같이 모여 반 카페 준비에 바삐 움직였다.

경기외고에서는 매 축제마다 반별로 테마를 잡 아 카페를 꾸미고 그것으로 수익을 모아 반의 친목을 도모하거나 기부하는 데에 사용한다. 반카페 준비는 축제 한 달 전부터 시작된다. 학 급회의를 통해 모두가 아이디어를 내어 반카페 의 콘셉트를 정하고, 반카페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들을 직접 물색해 예산안을 짜고 학교로부터 받은 예산으로 반카페를 꾸민다. 사실 반카페는 학급 전체의 의견이 최대한 반 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견 조율이 힘들다. 그 렇지만 학생들은 틈틈이 시간을 내어 여러 번 의 학급회의를 통해 의견을 잘 조율해 나갔다. 또. 기획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것까지 모두 독 립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반카페 준비는 학 생들 모두에게 자율적으로 일을 해보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어려움도 있었다. 지

난 축제와 다르게 불 사용이 일체 금지되어서 약간의 혼 란이 있었고 제한된 조건 안 에서 반카페를 계획해야 돼 서 힘들었지만 모두들 더욱 단합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는 기지를 발휘했다.

축제 당일, 모든 반카페를 돌아다니며 체험해 보았다. 모든 반카페가 각각의 개성이 있었고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 것을 느낄 수 있었 다. 2학년 일어과는 전통적으로 귀신의 집을 실감나게 꾸며 큰 인기를 끌었다. 또, 직접 개 발한 메뉴를 판매하기도 했고 메뉴에 어우러 지게 반을 꾸몄다. 1학년 1반은 매운 쥐포구이 등의 직접 개발한 메뉴로 새로운 맛의 조화를 선보이기도 했고, 1학년 2반은 '스몰스'라는 초 코과자 사이에 녹인 마시멜로를 넣은 독특한 메뉴를 선보이며 이에 맞춰 반을 캠핑장처럼 꾸몄다. 2학년 6반은 불 대신 전자레인지 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전자레인저'라 는 이름으로 오직 전자레인지만을 이용한 음식 을 판매했고. 파워레인저를 닮은 마스코트로 눈길을 끌었다. 한편, 도박(?)과 게임도 성행 했다. 1학년 8반에서는 반을 카지노로 꾸며 도 박 열풍을 일으켰고, 반 한쪽에서는 칵테일 바

를 운영해 직접 여러 음료를 섞어 제조한 음료수를 판매 했다. 또. 1학년 3반에서는 사격과 절대딱지 코너로, 1 학년 7반에서는 카트라이더 게임으로 많은 재미를 주었 다. 잠시 쉬어가는 코너를 준 지 기대해본다.

축제에는 여러 공연 동아리의 무대, 미스 가 플, 런닝맨, 담력훈련 등 여러 재미있고 화려 한 행사들이 많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참가 할 수 있었다는 데에 있어서 반카페가 가장 큰 의미를 가졌던 것 같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반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보람찼고 직접 수익을 벌어들였다는 점이 매우 뜻깊었다고 한다. 이 번 반카페가 개성 넘치고 기대 이상이었던 것 만큼 다음 축제에는 또 어떤 반카페가 꾸며질

비한 반도 있었다. 2학년 5반은 쉼터를 만들 어 돌아다니느라 지친 사람들이 쉴 수 있게끔 했으며, 1학년 6반에서는 축제의 소중한 추억 을 간직할 수 있도록 사진관을 운영했다. 이밖 에도 타로, 관상, 맛있는 음식과 함께 가족, 친 구. 연인을 위한 분위기 좋은 카페를 선보였다.

▶ 전세현 기자





# Gafliesta Gallery



























